

2025 공익대거진

5기 아카이브 에디터 활동자료집



2025. 7. 12. 사진실습 강의 중

기록하는 사람들의 2025 현장의 기록들

: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세월호의 노래와 만세길의 발걸음, 영케어러의 하루와 이주의 언어,
기후정의행진과 시민 햇빛발전소, 전세사기 대응의 문장까지
사소한 일상과 거대의 의제가 서로의 문턱을 낮추며 한 타래로 엮인다.

2025년 한 해, 시민기록자들은 때로 처절한 현실을 포착했고,
공익활동 현장의 생동을 품었으며, 전환의 순간을 매듭지었다.
그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공익'이라는 말의 바깥으로 걸어 나가
골목과 광장, 법전과 생활까지 두루 닿을 수 있다.

...

이제 당신의 손으로 한 올을 더 당겨 보면 어떨까.
당신의 손길과 목소리, 때로는 경청이 이 실타래에 더해지는 순간,
공익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안과 밖을 동시에 향하는 우리의 몸짓이 된다.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 “실타래¹⁾” 전시 서문 중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
현장스케치 영상 보러가기

1)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 “실타래”는 경기도 내 공익활동 현장을 기록한 5기 에디터(시민기록자)들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임. ‘실타래-깎다, 잣다, 엮다, 잇다’를 주제로 기록을 생산하고 이를 해석하여 체험, 전시, 토크 등 전 과정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1

기록하는 사람들

5기 에디터 소개 05

4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 1 기억·애도·평화·사회안전 14
- 2 청년·활동가·네트워크 27
- 3 여성·젠더·재생산권·스포츠 37
- 4 장애·접근성·언어권 42
- 5 이주·다문화·공동체 47
- 6 기후·생태·에너지 전환 54
- 7 노동·산재·안전 60
- 8 주거·공간·도시재생 65
- 9 정책·거버넌스·주민참여 68
- 10 문화예술·교육·의례 78
- 11 디지털·AI·미디어 리터러시 84
- 12 가족·돌봄·청소년·세대 88
- 13 공익활동·기록·홍보 92

2

한 해를 엮어낸 시간들

- 활동 소개 09
- 활동 성과 10

3

현장의 기록들

- 활동 타임라인 11

5

기록이 남긴 여운 : 마치며 99



5기 에디터 소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곳곳의 공익활동을 발견하고 기록하며 세상에 따뜻하게 확산시킨 5기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라이언

이슈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는 '라이언'입니다.



심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움직임을 기록하는 공익활동가입니다.



주야

'세상을 바꿀 용기'를 가진 주야 에디터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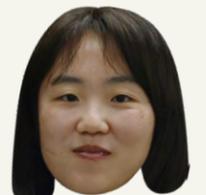
다름

다른 세상을 상상하며 명랑함을 잃지 않는 기록 활동가입니다.



옐로구피

'지금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날이다'라는 좌우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활동가입니다. 인권과 환경 관련 이모저모를 전하려고 합니다.



또봉

또 보고 싶은, 세상을 바꾸는 공익활동 이야기 또봉이 전합니다!



달리

인류가 선물받은 지구를 지키고 싶은 기후·에너지활동가입니다.



덕비공

한국의 소리를 전달하는 공익활동가입니다.



꿀벌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글쓰고 싶은 작가 활동가 김화숙입니다.



코코볼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힘, 공익활동으로 미래를 만듭니다.



마시네어

다정한 세상을 꿈꾸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공익활동가입니다.



참배움

못 생명과 더불어 살려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록합니다.



공익인간

매일매일 기억하는 눈짓, 그날그날 기록하는 손짓 눈짓 손짓으로 열심히 기록하는 공익인간!



초스코스

늘 방향하기에 정착하고 싶은 세상을 꿈꾸는 소시민입니다.



나미

마을만들기, 마을미디어, 청소년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활동가입니다.



레지스타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공익활동가입니다.



윤작가

인권과 사회, 소통과 표현의 경계를 허무는 이야기꾼입니다.



덕배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덕배입니다.



미리내

다양한 시선, 일상의 발견, 순수한 기록, 열심히 보고 듣고 기록하겠습니다.



바람자전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에는 소통이 필요하고, 저는 소통의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한 해를 엮어낸 시간들

활동 소개
활동 성과



활동 소개



정기회의
5회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4강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5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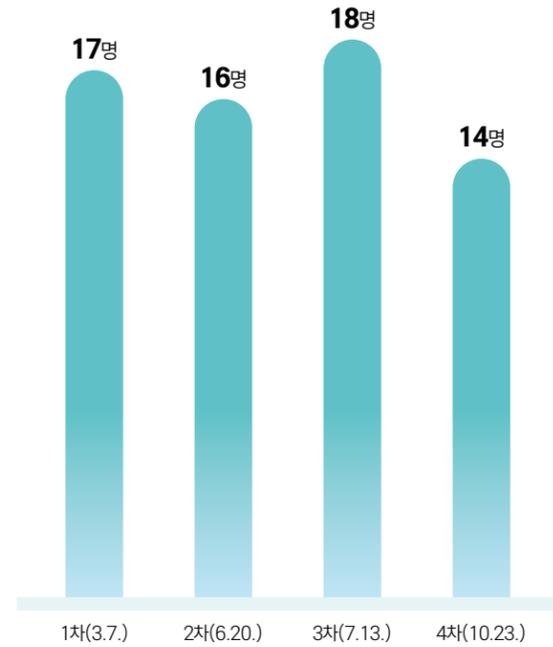
원고 작성(공익웹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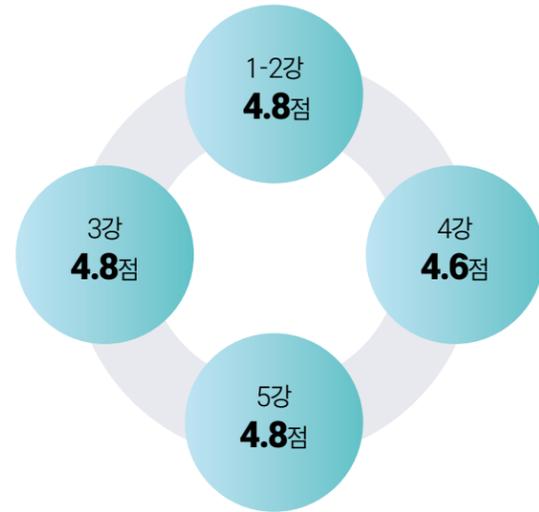
시민기록
컨퍼런스

활동 성과

정기회의 평균 참석
16.3명(전체 21명, 참석률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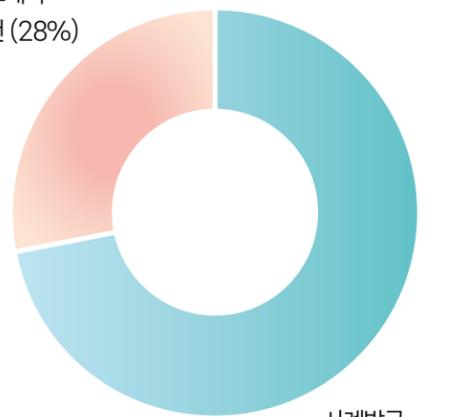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평균 만족도
4.74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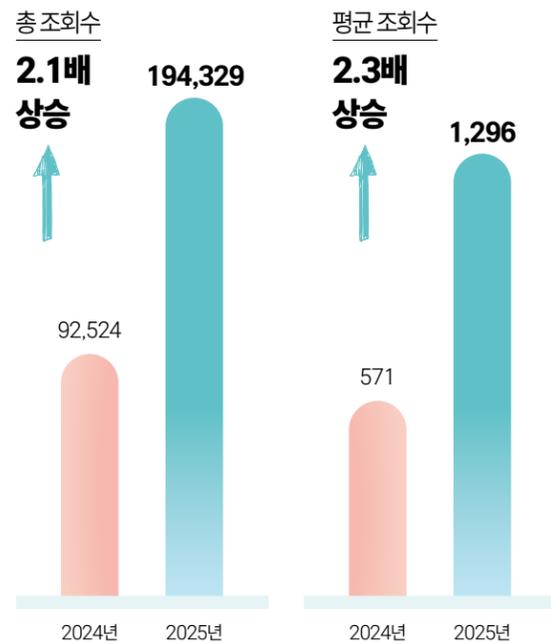
공익웹진 발행
 총 **128**건

현장스캐치
36건 (28%)



사례발굴
92건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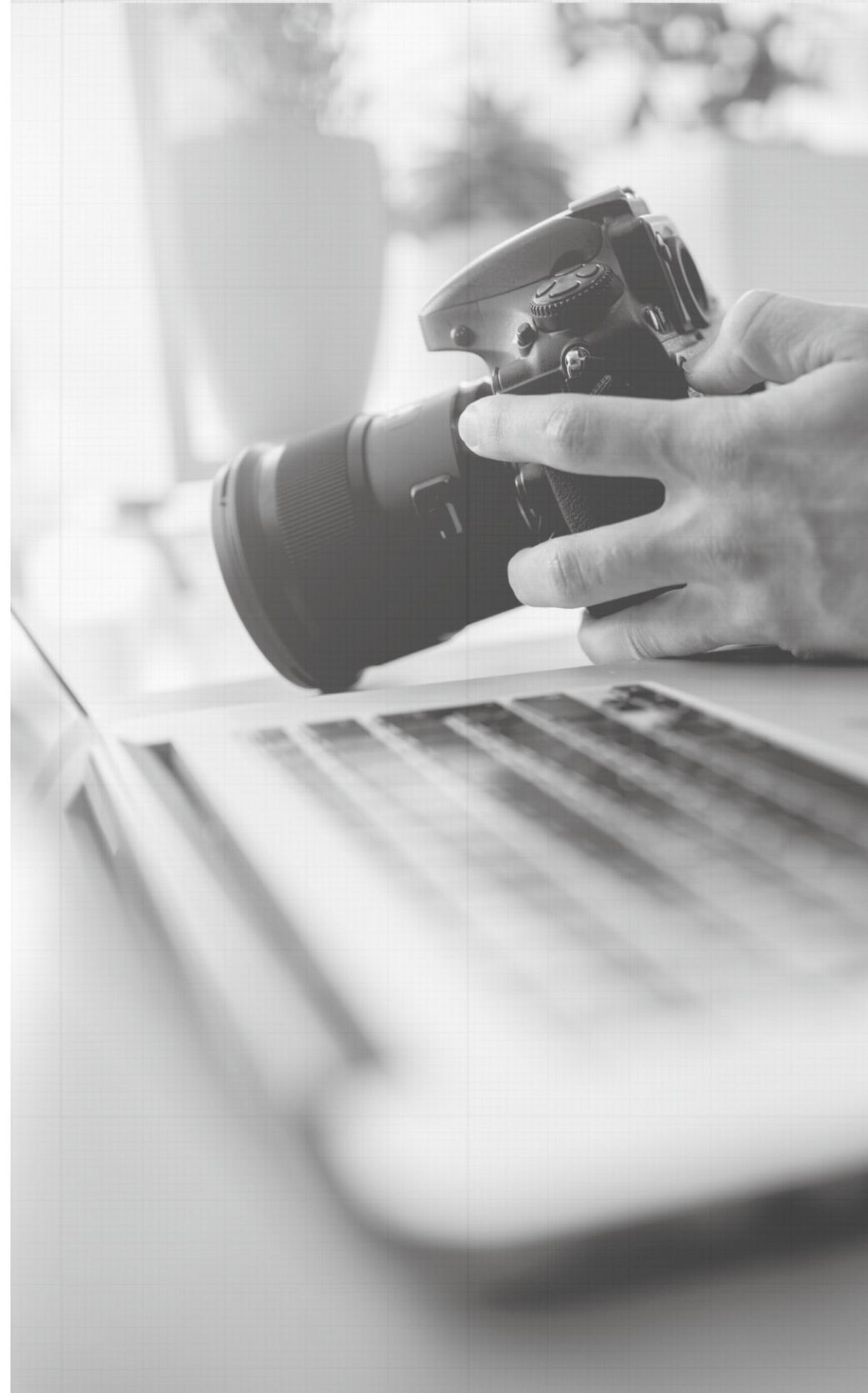
공익웹진
 총 조회수 및 평균 조회수 **상승**



3

현장의 기록들

활동 타임라인



3.7.

5기 아카이브 에디터 1차 정기 회의 및 발대식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1강 [이론] “시민기록자와 저작권” / 강사 _ 김재민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2강 [이론] “효과적인 글쓰기를 위한 유의점” / 강사 _ 양훈도



6.20.

5기 아카이브 에디터 2차 정기 회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3강 [특강]

“나의 기록이 사회적 기록으로, 기록이 바꾼 세상” / 강사 _ 은유



7.12.

5기 아카이브 에디터 3차 정기 회의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4강 [실습] “사진으로 기록하기”

실습장소 _ 수원 행리단길 / 강사 _ 최중명



9.13.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5강 [기행] “기억을 걷다”

방문 _ 4.16기억저장소 및 단원고등학교

해설 _ 윤명순 (4.16기억저장소 / 단원고 2학년 1반 (故)한고운 엄마)



10.23.

5기 아카이브 에디터 4차 정기 회의



8.8. ~ 11.24.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 기획단 회의 (총 6회)



11.8.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



11.29.

5기 아카이브 에디터 5차 정기 회의

및 활동인증서 수여식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기억·애도·평화·사회안전

- 안산 수암동에서 106년 전 “조선독립만세”를 되새기다 _ 레지스타
-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 제주 4.3사건** _ 또봉
- “수고했어 오늘도”, 4.16합창단 이야기 _ 꿀벌
- 세월호 참사 11주기 416별빛걷기 _ 레지스타
-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_ 꿀벌
-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_ 꿀벌
-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다시 봄이 온다” _ 레지스타
-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민 교육, ‘평화통일 지도자과정’ _ 레지스타
- 민주주의대축제 5.18전야제를 다녀와서 _ 꿀벌
- 전쟁 넘어 평화로, ‘안산시민 통일걷기대회’ _ 레지스타
- 2025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_ 럭비공
- “회장님”보다 활동가 “얼썩~”가 좋아요! _ 꿀벌
- 내가 만든 땅이 전쟁터가 된다면 _ 심지
- 시민기록자 양성교육 심화과정 ‘기억을 걷다’ _ 옐로구피
- 평화는 0하다 : ‘나’, ‘너’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_ 레지스타
- “기억이 빛이 되어”, 4.16생명안전공원 문화제 _ 레지스타
- 무너진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_ 주야
- 축제, 다르게 보기- 불꽃이 사라진 뒤에 _ 또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 - 제주 4.3사건

에디터. 또봉

유채꽃이 만개하는 4월의 제주는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볼 것이 많은 곳입니다. ‘꼭씩 속았수다’, ‘우리들의 블루스’ 같이 유명 드라마의 배경이 되며, 누구든 마음이 동하면 떠나는 한 국민의 여행지인 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 뒤에는 아픈 역사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77년 전 봄, 제주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좌익 동조자’라며 제주에 ‘빨갱이 섬’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이후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1년간 2,500여명을 구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출처 _ 에디터 또봉

1948년, 제주의 봄

“오늘 삼일절 기념식이란 행 스람들 하영 모여이수다. 3시쯤 되어신가. 물 탄 경찰이 지나감신디 물이 막 앞에 이신 아이를 차분거 아니마썸? 겐디 순경이 그냥 가부런게. 막 부애나부난 스람들이랑 고치 쫓아가그냉 돌 던져부렸주게. 그때, 큰 소리가 들려오는거라. 순경들이 폭도인줄 알아신지, 스람들한테 총을 쏘분거 아니?”

(*사건 당시 가상의 목격자 시점으로 작성)

⇒ “오늘 삼일절 기념식이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갈 때였습니다. 기마 경찰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작스레 흥분하기 시작하며 앞에 있던 아이를 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 기마 경찰은 아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화가 난 나머지 스람들과 함께 그를 쫓아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폭동으로 오인한 것인지, 스람들을 향해 총을 쏘아댄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 오름마다 붉은 봉화가 솟아올랐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서와 서북청년단을 습격했고, 5.10 총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제주는 과반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남한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공산 폭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과 경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진행되었으며, 무장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빨갱이로 몰린 수많은 스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사건의 시작은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서의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날, 6명의 도민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이에 격분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져 총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것을 본 미군정은 ‘제주의 70%는

사람들은 산으로, 동굴로 숨어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7년여 만에 군과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4.3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을은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오랜 세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 사건을 금기시했고, 제주도민들은 ‘4.3’이라는 숫자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웠습니다. 추정 희생자는 총 3만명, 제주 인구의 10%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참조)

봄이 지나간 제주

큰 비극을 겪은 제주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산간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공비출몰지역’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그곳을 떠나고는 하였습니다. 제주 각지에는 이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마을’이 많았습니다. 4.3 사건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 활동에 심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제주 4.3 평화재단은 연좌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폭도’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사건을 더욱 공공 감추게 되었습니다.

1978년 발표된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은 잊혀지기를 강요당한 4.3의 비극적 역사를 끄집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4.3 사건의 아픔을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내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고, 당시 그 사건을 침묵해야 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주 4.3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에 들어서야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4.3 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4.3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출처 _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누리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4.3 사건을 기억하는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로 사람들에게 당시의 비극을 담담히 그리고 사무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2023년부터 ‘제주 4.3 영화제’를 열어 4.3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2025년에 열릴 여러 행사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소개합니다.

2025년 제주4.3 기억하는 방법

1.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제주 전시

-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5월 6일까지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전시는 보스니아 War Childhood Museum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경험을 조명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삶을 살펴봄에 4.3사건이 아이들에게 어떤 비극이 되었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jeju43peace.or.kr/kor/schedule/list.do?search_year=2025&search_month=03)

2. 제77주년 제주4.3 경기도청 특별 전시회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展 in 경기>

-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展 in 경기’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전국시사만화협회와 함께하며, 현직 시사만화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만화로 보는 4·3’이라는 주제로 4·3 사건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4·3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시는 제주 4·3 사건의 전국화와 대중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도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함께 4.3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722&utm_source=chatgpt.com)

3. 제주4·3평화재단 주최 온라인 추모관

- 제주4·3평화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으로도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주4·3평화재단의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희생자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peace43.jeu.go.kr/board/memory/list.do?utm_source=chatgpt.com)

4. 영화 ‘목소리들’

-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 헌신적인 제주 4.3 연구자의 길을 따라가며, 어둠 속에 봉인되어 온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냅니다. 2025년 4월 2일 개봉 예정이니 꼭 관심 갖고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입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어머니께 4.3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 있는지 여쭙보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어머니의 이모부께서 4.3 사건 당시 희생되었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동네에서는 같은 날 몇몇 가구가 동시에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 등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4.3 이야기는 밖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주는 아직 그날의 봄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속에서도, 피어난 유채꽃 사이에서도, 그날을 기억하는 이들의 눈빛 속에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슬픔이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가 온전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루만지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_ ai 생성(챗GPT 활용)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에디터 **꿀벌**

도종환 시인은 시 '화인'에서 4월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도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란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때문이다.

그게 어디 시인 한 사람만의 고백일까. 11년 전 4월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노라, 고백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

4.16 합창단원이자 활동가 파주 시민 김서원(도로시) 님과의 일문일답이다.



출처 - 4.16합창단

자기소개와 근황 인사 부탁한다.

파주에 있는 여성 위기 청소년 쉼터에서 밥하는 일을 한다. 24시간 생활시설인데 활동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도록 맛있는 밥을 해 주는 게 내 일이다. 청소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게 내 즐거움이다. 예산에 맞게 좋은 재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매주 월요일 퇴근 후 안산으로 4.16 합창단 연습하러 가고, 다양한 공연 활동도 한다.

윤석열 파면 결정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4.16가족들이 떠올랐다. 4.16 합창단에서 노래한 건 3년이지만 세월호 가족들 곁에 있는 건 11년째다. 세월호 참사로 나는 정치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 정치에 무관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지, 투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유연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다.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자기 인생을 나누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내 삶도 그렇다. 그날이 나를 깨웠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다른 삶을 살게 해줬다.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온 농민들 얘기 중에 그곳에 세월호 아이들이 와 있는 거란 말이 있었다. 맞다. 나도 합창단에서 노래할 때 항상 아이들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

20140416 참사 당일의 기억은?

애들 키우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아파트 평수랑 좋은 대학 보낼 생각하고 살았다. '애들은 왜 나를 따라주지 않나, 남편은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할

까'라며 늘 화가 차 있었다. 노는 날도 놀 줄 모르고 신나는 생각은 죽어도 못 하는 일 중독자였다. 그런데 수학여행 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갑자기 내 삶이 다 부질없어 보였다.

당일 제일 먼저 찾은 게 우리 애들이었다. 애들이 어디 있지? 아들하고 연락이 돼서, 배고프지, 라며 짜장면을 사줬다. 짜장면을 먹이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우리 애들은 교복 입고 이려고 다니는데 그 애들은 못 돌아왔잖아. 더 얘기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안 잡혔다.

출처 - 인터뷰이(김서원)



4.16 활동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있었나?

갈피를 못 잡다가 지역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서명받는 사람들이 있길래 참여하고 그 곁에 있게 됐다. 2015년 들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을 한다는 말이 들렸다. '아, 그럼 내가 음식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김경환 목사님과 네댓이 안산으로 갔다.

가 보니 안산의 '치유 공간 이웃²⁾'이었다. 우리는 각각 작은 개다리소반에 밥상을 받았다.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진, 울컥 뜨거운 눈물이 나는 밥상이었다. 가족들에게 차려지는 밥상이라는 생각에 나는 계속 울면서 밥을 먹었다. 이영하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곳은 야전병원"이라고. 투쟁하고 다치고 지치면 잠깐 쉬어 가는 곳이라

2) 치유공간 이웃(이웃): 2014년 9월~2021년 2월까지 안산에 있었던 치유 공간. 정신과 의사 정혜신·심리기획자 이명수 부부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이영하 전 대표(50)가 실무를 맡았다. 수많은 활동가와 봉사자들이 4.16 가족들이 안심하고 울고, 편하게 밥 먹고 싶 수 있게 함께 했다. 별이 된 이들의 생일 모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책 《밥은 먹었어?》(이영하, 걷는사람, 2022)와 영화 <생일>(2019, 이종연 감독)에 이웃 이야기가 더었다.

3) 단원고 2학년 6반 고(故) 이영만(1998.2.19.~2014.4.16.) 군은 형제 중 막내로 약하게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 축구를 좋아하고 5km 마라톤에서 상을 받았다. '미소천사'로 밝고 순한 성격에 엄마와 학교와 친구들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해 우주공학자를 꿈꾸었다. 2023년 '이영만 연극상'이 제정됐다.

고, 그게 4.16 활동과의 연결이었다.

봉사자 엄마들이 《금요일엔 돌아오렴》(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창비, 2015)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길래 함께 했다.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던 책을 같이 낭독하며 실컷 울었다. 점차 노란 리본을 만든다는 가 동네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대에도 섰다.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과 밥 이야기

첫 생일 상차림을 위해 연 계좌에 80만 원이 모였다. 양을 대중 못해 장 보고 나니 딱 만원 남더라. 이 정도로 돈이 든다면 내 카드 긁을 각오까지 했다. 그렇게 준비된 영만이³⁾ 생일 모임에 단원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엄청 왔다. 50인분이란 음식이 100명 먹고도 남아, 화수분이라며 싸 주었다.

다음 모임은 다음팀이 단독방을 열어 준비했다. 별이 된 아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다. 나는 그런 팀을 조직하고 식재료를 연결하고 음식도 만들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이웃' 밴드에 모여 들었다. 저명한 여성들인 '십자매회'를 비롯해 신부님, 선교사님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매달 40만 원 정도로 생일 모임을 할 수 있었다.



출처 - 인터뷰이(김서원)

2015년 겨울에는 가족들을 위해 김장을 했다. 고양파주 생협과 유기농 식당 네트워크에서 재료를 뒀다. 피산 농부님들이 연결됐다. 몇백 포기 배추가 트럭으로 오고, 성당에서 기도하던 할머니들이 나와서 배추를 절이고 소금, 고춧가루, 깨 등을 아낌없이 가져오고, 뒷정리를 도왔다. 가족들께 보내고 쌍용차나 투쟁하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이웃에서 먹을 수 있었다.

4.16 활동 이전에도 음식하기 좋아했나?

나는 4년 1남 중 막내딸인데, 아버지가 내 밑에 남동생이 난 후로 “서원이야 제일 예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셔서 그렇게 알고 컸다. 어깨동무 잡지에서 나는 요리 칼럼을 제일 먼저 읽는 아이였다. 신문도 잡지도 요리 쪽을 1번으로 봤다. 중학교 때 레시피를 보고 낫선 피자를 직접 만들어 봤다. 할라피뇨, 피망 등 없는 건 집에 있는 재료로 대체했다.

엄마가 정육점에서 살이 치렁치렁하게 큰 돼지고기 덩이를 사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신문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돈까스를 만들었다. 소금 후추만 쓰란 법 있냐, 간마늘로도 재고, 양파로,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청양고추 양념으로도 재어 튀겼다. 온 식구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 입 짧은 남동생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 우리 엄마는 늘 내게 고마워했다.

언니들은 나를 “요리 천재”라고 불렀다. 장사하고 늦게 돌아오는 엄마에게 내가 만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 드리면 “서원이 때문에 내가 한숨 돌린다”라며 좋아하셨다.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10개 싸던 시절, 내가 만든 반찬 덕에 엄마 수고가 줄어드는 게 좋았다.

참사 이후의 달라진 삶 이야기

돈도 안 벌고 안산과 파주를 오가며 생일상 차리는 일을 한 2년 했다. 아이디어로 생각하던 음식을 다 만들어 봤다. 그러나 절대 나 혼자 한 게 아니란 걸 말하고 싶다. 연대의 힘을 배웠다. 같이 메뉴 짜며 마음을 나눈 유가족들과 십시일반 힘 보태 함께 한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런 중에 나는 이혼했다. 2015년 봄, 불교팀 주방에서는 고기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집으로 장을 봐서 모

였다. 남편이 폭발해 소리쳤다. “세월호 참사 안 났으면 어찌 살았겠냐, 죽은 아이들 생일상 차리느라 가족들 밥은 안 차려주냐?” 그는 상을 뒤엎고, 빌려온 큰 팬을 내 쪽으로 던졌다. 남편이 일베처럼 보였다. 그날 나는 온 가족을 모아 놓고 이혼을 선언했다.

살아온 날들을 부정해야 했고 다른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때였다. 내 마음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혼이 정리되는 몇 달간 남편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내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됐다. 딸이 나서서 이혼 서류를 갖다 줄 정도였다. 그는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18년의 결혼 생활, 연애까지 25년의 관계가 그해 말 허무하게 끝났다.

이혼 후에도 계속 활동가로

내가 저질렀으니 더 절실하게 활동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국에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매주 있었다. 생일 모임 후에 병커 원 교회 친구들과 토요일에 청계천으로 갔다. 매주 집회 광장에서 뭘 해볼까 궁리하다 주먹밥을 만들어 팔기로 했다. 잘 안 팔리더라. 그래서 그냥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가더라. 그 후 뭐든 나눔으로 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 청와대 앞 법의 노조, 비정규직 집회,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노숙 농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토요일 새벽에 밥을 해서 싸우는 분들에게 가서 나누었다.

가진 것 까먹으며 살았다. 고기 안 사 먹고 애들 학원 안 보내고 보험 깨고 적금 해지하고 연금 없어지고 전세가 월세로 줄었다. 불만 많던 아들이 생일 모임에 참여해 보고 반항을 끝내더라. 세월호 당시 중2였던 딸도 생일 모임에 다녀간 후 엄마를 이해하더라.

박근혜 탄핵 후 지역에서 소수당 진보당에 입당했다. 4.16 활동할 때 제일 묵묵히 함께한 그분들과 파주에서 4.16과 함께 노래하는 일을 시작했다. 음식 만들던 사람들과 함께 공모사업으로 파주 4.16 합창단을 3년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안산 4.16 합창단까지 하게 됐다. 4년 정도 한 ‘동네 부엌 천천히’에서 청소년 시설로 올해 직장을 옮겼다.



출처 _ 인터뷰이(김서원)

그동안 소진되는 느낌은 없었나?

성과 위주의 인간이었는데 왜 없겠냐. 파주 시민 합창단 3년 차 공연을 지역에 있는 5개 팀 연합으로 잘 올린 후였다. 장애인 가족팀이 40여 명이 참여해서 한 100명이 했다. 행복하게 끝나고 손뼉 치고 각계 인사들이 인사하고 있는데, 김서원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이 올라왔다. 한 번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내 욕심대로 활동한 적 없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많은 일을 많이 정리하고 직장 일과 4.16 합창단만 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뺄뺄대는 몸도 돌보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4.16 참사 11주기를 맞는 소회는?

11년간 할 만큼 활동하고 나니 속에 화가 많이 풀리고 너그러워졌다. 대규모 음식을 몇 년 하다 보니 나는 음식 전문가가 돼 있었다. 이제 나는 몸도 마음도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성과 위주의 인간이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밥하는 일과 파주랑 안산 4.16 합창단 활동이 날로 재미있다.

그런 중에 작년에 엑스 남편하고 재결합하고 혼인신고도 했다. “당신은 활동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은혜 갚게 해 줘”라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열린 거다. 밥이나 사나 했더니 그는 점점 밥을 해 주고 싶더라. 그는 원하던 삶을 되찾은 셈이다. 가족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자였으니까. 바퀴 말하면 나에게도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길 원했더라. 그 집착과 강요와 구속이 내겐 화로 쌓였던 거다.

4.16 참사와 함께 깨졌던 관계가 4.16 활동 덕분에 다시 이어진 거다. 남편은 노년에 내 수발을 잘 들려고 자기 몸 관리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다. 우리 관계도 이전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나이든 연인이 되었다. 내가 4.16 합창단 공연하고 늦게 오는 날 그는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채우고, 맥주 두 캔 먹을 안주 준비해 놓고, 나 데리러 나온다. 돌아보면 이혼은 ‘신의 한 수’였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몰랐을 거다.

이후의 계획이나 꿈은?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이전 장사하는 곳에서 밥을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소질이 없다. 내 엄마, 아버지에게 밥해줬던 재미, 우리 엄마가 늦게 들어왔을 때 내가 밥 퍼서 김치하고 줘도 “세상에, 서원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구나.”라며 내 자존감을 키워준 밥이다. 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해 주는 일이 나는 즐겁다. 매일 출근할 때 일하러 가는 마음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러 가는 마음이다.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재우고, 내 밥을 먹고 애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4.16 가족 곁에서 4.16 합창단을 오래 하는 게 꿈이다.



출처 _ 인터뷰이(김서원)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다시 봄이 온다”

에디터 레지스타



출처_4.16재단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아픔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기억 편지 낭독 중(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장애인 씨)

매년 4월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만듭니다. 2025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열한 번째 맞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16일 오후 3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 노란 팔찌를 끼고 노란 리본 배지를 가슴에 단 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 국회의장, 안산시장,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억식 행사는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의 추도사, 영상 상영과 뮤지컬 공연, 생존 학생의 편지 낭독, 4.16합창단의 합창 공연으로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3,000여 명의 시민들을 비롯해 언론사의 생중계로 수많은 시민이 기억식을 지켜봤습니다.

기억식을 함께 준비한 4·16재단의 박승렬 이사장은 무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와 자연 재난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기억·애도·평화·사회안전

출처_4.16재단



이제서야 아이들이 돌아올 보금자리의 첫 삽을 떴다.
아이들이 우리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때는 진짜 봄이 올까?

진짜 진실이, 진짜 사죄가, 진짜 새 세상이 올까?
10년 하고도 다시 1년 오늘도 다시 약속한다.
꼭 밝히겠다고, 꼭 밝혀내고 말겠다고

- 영상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 중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평생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4.16생명안전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단원고 2학년 1반 故 김수진 학생의 아버지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아직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면서 국가를 믿고 의지하듯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를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사에 이어 상영된 <10년의 세월, 그리고 다시 첫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참가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그 무엇도 이겨내는
엄마의 약속
(중략)
10년 하고도 다시 1년
이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참사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이들이 왜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나아가 안전사회를 만들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걸어난 세월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엄마들의 굳건한 의지가 송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출처_4.16재단

영상을 다 같이 본 후 희생된 단원고 학생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공연 ‘나, 여기 있어요’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 10주기 기억식 무대에서 시 낭송을 했던, 그리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프로젝트로 제작된 영화 <목화송 피는 날>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던 박원상 배우가 열연을 펼쳐, 참가한 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인 장애인 씨가 무대에 올라 기억의 편지글을 낭독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고 언젠가는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봄이 올 때마다 아직 마음 한편은 차가워지

고 봄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두 번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대들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지만, 또 다른 비극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아직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날의 봄은 멈춰있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진심을 눌러쓴 편지글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4월 16일에는 오후 3시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 뿐만 아니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참사가 벌어진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오전 11시에는 인천에 위치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광장에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오후 4시 16분에는 서울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진행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기억식의 마지막 순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든 4.16합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4.16합창단의 노래는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식이 진행되는 도중 오후 4시 16분, 1분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사이렌이 안산시 전역에 울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출처 _ 4·16재단

내가 만든 땅이 전쟁터가 된다면

에디터 **심지**

대추리 마을, 대추가 많이 나서는 아니고..

2025년 6월,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영상사회학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팽택 대추리 평화마을을 찾았다. 대추가 많이 나서 대추리였을까? 그것은 아니었고, 가을이면 너른 들판에서 큰 수확을 했기에 대(大: 큰 대)추(秋: 가을 추)리로 이름 지어진 마을이었다. 상상만 해도 평화로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을 가지고 황새울 기념관과 대추리 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출처 _ 에디터 심지

대추리 박물관 전시 사진

“평화는 총칼로 지켜지지 않는다.”

황새울 기념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문장이었다. 그 아래엔 손글씨로 이름을 빼곡히 새긴 나무가 서 있었다. 아마도 주민들의 이름인 것 같다. 그곳에서 미군 기지 확장을 저지하려던 주민들의 투쟁과 기억을 마주했다.

대추리의 세 번의 쫓겨남

대추리는 강제 이주의 역사를 세 번이나 겪었다. 1942년,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며 첫 번째 이주를 겪었고, 1952년 주한미군 주둔으로 두 번째, 그리고 2004년, 한미 간 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다시 세 번째 이주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자신의 땅을 일군 주민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는 원래 빨이었어요 빨.”

황새울이라 불리던 이 논은, 주민들이 말 그대로 “직접”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이다. 내 돈 내산 정도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내가 만든 땅. 그래서인지 황새울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앞장선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다. 오래 살기만 해도 정이 드는 것이 땅인데, 직접 만든 땅이라니.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겠다고 공감이 되었다.

정부는 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했지만, 농민 대부분은 땅을 팔지 않았다. 결국 2005년 말, 국방부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했고, 그 순간부터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



황새울 기념관 내부 출처 _ 에디터 심지

1,000명 vs 12,000명

“새까맣게 올려오는 군대와 경찰이 무서웠어. 학생들을 개처럼 끌어내고 학교를 부숴버리는데, 하루 종일 살이 떨리는 거... 이거~ 미쳐버리겠더라고...”

- 대추리 박물관 사진 캡션 중

2006년 5월 4일, 대추리에 1만 2천 명의 경찰과 군인이 진입했다. 마을 주민과 연대자 약 1천 명은 학교를 중심으로 저항했고, 500명이 연행되었다. 정부는 상징적 거점이던 학교를 파괴했고, 마을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였다. 마을은 고립되고 주민들은 싸움을 이어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눈 앞 철조망을 막대기로 두드리며 울분을 토했다.



대추리 박물관 내부

대추리 박물관 전시 사진



아름다운 저항의 역설

폭력과 고립, 체포가 이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다.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정부와 협상 끝에 새로운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고, 지금의 황새울 기념관 옆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한 공동체 공간이다. 황새울 기념관과 대추리 박물관은 황새울의 저항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는 장소로 남아 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개성 있고 아름다운 집

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다시 마을의 삶을 일구며 살려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평택, 그리고 태평양까지

이 싸움은 단지 한마을의 일이 아니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중국을 견제했고, 평택은 그 전략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했다. 이후 강정 해군기지를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 미군 기지가 확장되었다. 대추리의 싸움은 단지 마을 하나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의 격랑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평화를 지키는 평택평화센터

대추리 주민 공동체의 저항의 정신은 평택평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택평화센터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다양한 문제를 시민의 시각으로 풀어가려는 평화운동 단체다. 미군 기지 감시, 범죄 피해 상담, 제도 개선, 평화교육, 미군 기지 순례, 역사기행, 평화영화제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의 설립 배경 또한 특별하다. 2002년 미군 기지 확장 계획 발표 이후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탄면 금각리의 논 605평을 한 평씩 매입하는 ‘605명의 평화 지주 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시민들은 그 공탁금으로 기지 문제를 알리고, 대중과 함께 싸우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 플랫폼이 바로 2007년 10월 20일에 설립된 평택평화센터다.

“우리가 잃어온 운명이 우리 마을만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이 싸움에 걸려 있었음을 알았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 황새울 기념관 벽면 글 중

진보 정권이라도 국가폭력은 가능하다는 현실, 미군 기지라는 구조적 문제, 패권 다툼과 권력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주민들의 삶터. 비록 황금 들녘은 사라졌지만, 황새울은 여전히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청년·활동가·네트워크

-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 플로우)’ 2기 발대식에 가다 _ 다음
- 나는 청년 2기, MZ의 본태를 보여주다! _ 초스코스
- 청플2기 1차 간담회 : 활동가 계정 생성 완료 _ 참비움
- 공익해봄? 함께해봄! 2025년 공익해봄 프로젝트 캠프 _ 공익인간
-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_ 레지스타
- 지속가능성, 접속 중 ... 「청플 2기」 4차 회의 _ 코코볼
- 네트워크, 청년들이 성장과 변화를 만든다 _ 력비공
- RE100 시대, 청년 공익활동도 재생할 수 있어요! _ 초스코스
-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수다회 _ 다음
- 청년을 위한 하루, 특별한 오늘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다 _ 레지스타
- 청년 활동가 쉽 그리고 () _ 또봉
- 나는 왜 무기력한가...정답은 ‘이것’에 있었다 _ 주야
- ‘해봄’이 ‘해냈음’이 되다 - 공익해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_ 공익인간
- 청년 활동가의 1년, 서로를 버팀목 삼아 쌓아올린 청플 2기의 기록 _ 엘로구피

공익해봄? 함께해봄! 2025년 공익해봄 프로젝트 캠프

에디터 공익인간



출처 - 에디터 공익인간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만남, 양평에서 열린다

공익해봄? 함께해봄! <2025년 공익해봄 프로젝트 캠프>가 6월 6일부터 7일까지 양평 블루비스타 호텔 & 컨퍼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는 초여름 남한강의 자연 속에서 청년 공익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천적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올해 현충일은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처음 맞이한 연휴였기 때문이다. 많은 인파가 몰린 나들이 차량으로 인해 양평행 도로는 종일 정체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예정보다 늦은 정오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중에 예정되어 있던 오리엔테이션과 '토닥 첫 만남 및 오프닝'은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로 순연되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오히려 여유와 기대감이 가득했다. 도시를 떠나

낮선 공간에서 처음 만난 청년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공익'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교감을 형성해 나갔다. 본 캠프는 1박 2일간의 일정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의 현장성과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익활동 시민 기록자로 공익 웹진에 '공익인간'으로 3년째 참여하고 있는 에디터로서, 이번 캠프가 청년 공익활동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되며, 이제부터 1박 2일간의 여정을 함께하며 기록한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여는 인사말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은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다"라며, 캠프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친해지고 머무는 이 시간들이 특별한 의미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봄'이라는 가벼운 실천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자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공익의 개념을 확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센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다. 이 캠프를 통해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캠프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긴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지치지 않고, 어려운 순간엔 서로 도우며 끝까지 함께 완주하자"라고 전하며 1박 2일간의 의미있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경기도 청년, 공익해봄? 함께해봄!로 모이다



출처 - 에디터 공익인간

이번 캠프에는 경기도 곳곳에서 활동 중인 청년 단체 및 프로젝트팀 총 7개 팀, 3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가나다', '디지털ON기', '몽당&GO', '다시쓸우산', '손으로그리는세상', '인사이트', '한울한울'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다문화, 지역소멸, 장애, 인권, 디지털 소외, 환경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주체들이다.

또한 현장에는 청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단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실무진, 공익활동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시민기록자, 미디어팀도 함께했다. 공익활동 시민 기록자로 '공익인간' 필명으로 활동 중인 에디터 역시 동행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번 캠프에는 공익 활동에 첫 발을 내딛는 참가자부터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는 청년 활동가까지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각자의 사회문제에식을 안고 모인 이들은 낯선 공간에서도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보였으며, 그 설렘은 점차 따뜻한 공감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1박 2일의 여정은 기대와 희망 속에 힘차게 시작되었다.

한 참가자는 "단톡방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냈던 다양한 참가자들을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어 기대가 컸다"라며, "막히는 길 위에서도 그런 설렘이 더해졌고, 실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금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소통하며 연결되다: '평화로운 소통과 임파워링'

첫 번째 시간에는 공익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형성하는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피스모모'의 활동가 '가을', '가지' 팀이 진행한 '평화로운 소통과 임파워링' 세션은 참가자들이 낯설고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출처 - 에디터 공익인간

여기서 '임파워링'은 단순한 자기표현을 넘어, 각자의 감정과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공익 활동에 필요한 자신감과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로 나아갔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카드로 표현하고, 파트너와 번갈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또한 '잘 들어주기', '딴짓 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소통의 질과 방식에 따라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꼈다. "서로 다르다는 것, 어색하다는 것이 오히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며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용기가 중요하다"

이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활동가들은 '공익활동에서의 소통'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연결되는 과정이 진정한 소통임을 강조하며, 이는 곧 공익활동의 근간이자 지속 가능성의 열쇠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빈자리를 함께 돌아보며 '초대의 제스처'를 실행했고, 타인의 존재를 환대하고 기억하는 일이 공익활동가로서 얼마나 중요한 감수성인지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한 활동가는 "소통은 단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일상의 자세이며, 공익활동은 그 연결의 경험을 실천하는 여정"이라고 정리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준비된 커피와 시원한 음료, 다과를 즐기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었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교육은 '내가 생각하는 공익이란?'을 주제로 마을로협동조합 '따노' 대표가 강의를 맡아 공익의 본질과 지역 기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따노 대표는 공익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공익은 특정한 제도나 전문성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질문과 실천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정해진 답을 찾

기보다 질문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강연을 통해 공익의 개념이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장면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실감하며, 각자의 활동과 연결 지으며 깊이 있는 공감을 나누었다.

저녁 시간, 멘토 소개와 조별 매칭과 프로젝트 기획으로 이어지다

블룸비스타 호텔은 A동부터 D동까지 건물로 나뉘어 있으며, 이번 캠프의 강의실은 A동에, 식사는 D동에서, 참가자들의 숙소는 C동에 마련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뚝배기 스파게티와 감자튀김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하루 피로를 잠시 달래주었다. 식사 후 참가자들은 객실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강의실에 모여 저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갈 멘토 6명이 차례로 자신을 소개하고, 활동 경험과 각 팀과의 매칭 이유를 공유했다. 멘토들은 사회복지, 환경, 문화기획,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앞으로 3개월간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실행에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멘토들의 경험과 조언에 깊이 귀 기울였고, 조별 매칭을 통해 향후 활동을 함께할 동료들과 첫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관심사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가나다팀, 공익의 메시지를 기록과 창업으로 확산하는 꿈

가나다팀은 중장년층을 위한 정신적 웰니스 치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초기에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삶의 경험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현재는 '추억 지도', '라이프 라인 완성' 등의 맞춤형 기록 서비스로 확장하며 더욱 실질적인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가천대학교 창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획과 실행을 병행하고 있다. 한 팀원은 "공부하면서 쌓은 이론을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하고 싶었다"라며, "세상에 이로운 일을 널리 퍼뜨

청년·활동가·네트워크

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익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팀원은 "공익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캠프에서 실무자들의 경험과 다양한 접근 방식을 들으며 공익활동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라며, "명확한 아웃풋과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가나다팀은 이번 캠프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며, 공익 창업이라는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출처_에디터 공익인간

인라이트 인권을 향한 관심, '장애인 인권'으로 구체화되다

인라이트 팀의 정재원 팀장은 대학 재학 중 인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권의 현실과 한계를 체감하며 더 넓은 사회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에 대해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활동을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달았다"라며, "그래서 이 주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공익해봄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 팀장이 이끄는 인라이트 팀은 '장애인 인권', 그중에서도 특히 '배리어 프리(barrier-free)'에 대한 인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지체장애인은 직접 불편함을 말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표현이 어려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우선 배리어 프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람들이 '배리어 프리'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 배경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프로젝트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정재원 팀장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공익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각의 깊이나 활동의 수준이 높은 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질문하고 대화를 나눴다"라며, "그들의 신념을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공익의 영역도 확장되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활동은 직접적인 이익이 보이지 않아 열정을 잃기 쉬운 일"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이나 빈곤 계층 등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디지털 온기, 광명에서 공익의 첫걸음을

디지털 온기팀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팀명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따뜻함(온기)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디지털을 '켜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ON'을 결합한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광명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이들은 지역 내 복지관 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프로그램을 실현할 계획이다. 팀원 3명은 모두 대학생이지만, 각기 다른 전공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와는 직접 관련 없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 팀원은 "사실 우리 팀은 공익 활동 경험이 풍부하지 않지만,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적용해 보려는 열정을 갖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캠프를 통해 공익의 개념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공익이라는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이번 기회

를 통해 더 가까운 실천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캠프에서 “공익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감을 함께 표현했다.

밤 9시가 넘어서도 강의실에는 열기가 이어졌다. 멘토와 멘티들은 조별로 모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토론을 이어갔고,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디터는 쏟아지는 눈꺼풀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자리를 떴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이 캠프가 지닌 진정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 프로젝트 기획 발표

다음 날 아침, 밤늦도록 토론과 회의를 이어간 참가자들을 위해 센터에서는 과일 컵과 샌드위치,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센터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참가자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윽고 캠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일일 프로젝트 기획 발표가 이어졌다. 각 팀은 멘토와 함께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팀과의 차별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시간은 단순한 공유를 넘어, 청년 활동가들이 실질적인 공익 실천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발표에 대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적어 전달했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팀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공감팀’을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팀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몽당&GO’ 팀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과 문화 체험 기획을 통해 지역사회 내 포용과 연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센터에서는 준비한 소정의 선물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전하며 특별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박수를 보내며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함께 나눴으며, 실현 가능성과 확장성, 공익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발표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몽당&GO 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따뜻한 공익 실천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몽당&GO’ 팀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 실천을 펼치고자 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근무 중인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들과의 추억 쌓기를 위한 문화 체험 기획, 교육 콘텐츠 제작 외에도 봉사자(교사) 스스로도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활동 매뉴얼 키트나 놀이 프로그램 등을 함께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캠프를 통해 “기존에 여덟 명으로 시작된 소규모 팀이었지만, 이 취지를 함께하는 교사 네트워크 170명의 회원들과 공유해 더 큰 연대로 확장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잘 정착해 후속 활동으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지는 여정 : 공익 프로젝트 추진 일정

이번 캠프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자는 모집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4월 말까지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5월 10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이 열렸다. 1박 2일간의 캠프(6월 6~7일)를 기점으로, 이후 6월 28일과 7월 중순에는 두 차례의 역량 강화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성과 공유회는 10월 중 열릴 예정이며, 이 모든 과정은 6월부터 9월까지 멘토링이 병행되어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공익활동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 : 에디터공익인간

이처럼 2025년 공익해봄 프로젝트는 단순한 캠프를 넘어, 약 6개월에 걸친 실천형 청년 공익 프로젝트 육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의 마무리, 참여자들의 따뜻한 소감으로 마침표

캠프의 마지막 시간,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이번 경험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불필요한 일정이 하나도 없고 모든 프로그램이 알차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익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야가 넓어졌다”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등의 진심 어린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여러 참가자들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진심을 나누는 연결의 장이었다”라며,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큰 기대를 보였다.

공익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작고 지속적인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공익해봄 프로젝트 캠프가 열린 양평에서의 1박 2일은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곧 공감이 되었고, 공감은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정의 기록을 함께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 캠프에서 피어난 연결의 씨앗이 더 넓은 사회 속에서 자라나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공익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스케치

지속가능성, 접속 중 ... 「청플 2기」4차 회의

에디터. 코코볼

오늘도, 우리는 공익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그려나가는 중이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4시,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의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다음 일정을 정하고 안건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심’과 ‘연결’이라는 그들만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회의를 통해 필자는 청년들이 직접 그려나가는 지속 가능한 공익활동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 2기 4차 회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을까? 지역 주제별 정보 교류 및 토론,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TF 추진 현황 공유 및 세부 추진 계획 논의,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TF 추진 현황 공유 및 세부 추진 계획 논의, 공동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유 및 차기 회의 일정 조율까지. 이번 회의에서도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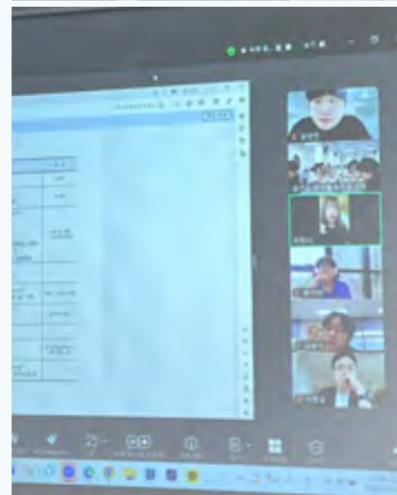
심도 회복도 네트워킹도 기획 중 ...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이날 회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박 2일 네트워크 캠프 TF의 진행 현황 공유 및 세부 사항 논의였다.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가) “심, 그리고 시작”은 심과 회복, 성찰, 네트워킹이 조화를 이루는 청년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공익활동가 간의 심리적 연결을 촉진시키고, 활동의 지속 의지를 북돋는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한다. 회의 중 청년 위원들은 공익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공익활동가들에게 ‘진정한 심’이 필요한 이유를 나눴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워크숍이 아닌, 공익활동가들의 몸과 마음, 일상이 회복되는 네트워킹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스스로 설계한 회복 캠프가 상당히 기대된다.



출처 - 에디터 코코볼



↑
조한나 위원의
발언

←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우선, 캠프 TF 회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한나 위원(이꿈이)이 캠프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캠프의 장소는 용인산림교육센터(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96-11)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캠프의 대상은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청플’ 위원 및 연계 청년 공익활동가 25명 내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가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연결성을 되짚는 활동, 자연 속 공간에서의 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가 개별 성찰과 집단 회복의 시간, 간담회에서 다룬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한 교류,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이어나갈 힘과 기회 제공 등을 논의하였다.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이 외에도 캠프 진행 시, 자기소개 진행 방식과 활동 프로그램,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차후에 캠프 TF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획하는 ‘심’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캠프가 공익 활동의 긴 여정에 다시금 불씨를 지피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간담회도 기획 중 ...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

다음으로, 다가오는 “제2차 청년 활동가 간담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청년 공익활동가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탐색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또 다른 교류의 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활동가 지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적합한 발제자와 패널을 추천받았고, ‘공익활동가 지수’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기관에도 섭외 요청을 이미 보낸 상태라고 TF 팀은 전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건, 패널 토크 제목에 대한 이야기였다. “3년 뒤, 나는 여전히 활동가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제목을 두고, 보다 열린 상상과 긴 호흡의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n년 뒤’로 확장해 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3년’이라는 시점이 주는 구체성과 현실감도 중요하지만, 더 확장된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자는 고민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간담회 TF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더불어 8월 초에는 대면 회의를 한차례 더 진행해 기획의 빈틈을 점검하고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간담회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스스로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는 시도다. 간담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길 질문들은 이미 오늘 청년들의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에서는 캠프 운영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신청 후 무단 불참, 이른바 ‘노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여자들의 책임감을 높여면서도 부담은 줄이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또한, 주어진 시간에 비해 계획된 프로그램들이 다소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왔다. ‘심’이라는 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더해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두 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캠프를 신청할 때 두 가지 중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하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프로그래밍에 캠프의 목적과 정체성이 더 담기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심,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도 좋지만, “심, 그리고 ()”이라는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었다. 즉, 괄호 안을 활동가들이 스스로 채워 넣음으로써 프로그램이 지닌 의미를 더욱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이 괄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축제도 기획 중? ...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공동 주관>

마지막으로 다뤄진 핵심 안건은 '청년 플로우 2기'에 제안된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공동 주관에 대한 논의였다. 청플 2기가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션을 직접 기획하고 공동 주관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위원들 간 해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론적으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결정했고, 행사 날짜인 9월 30일에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추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TF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논의하였다.

다가오는 9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에서 열릴 2025년 공익활동 페스타는 청년 활동가들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해당 행사를 통해 공익 활동 분야 경기도 주요 의제 및 정보를 공유하고, 공익활동가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외 정책 개선 및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힘차고 푸른 물결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맺으며...

지금도,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접속 중..!

이번 회의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건 아니었다. 완벽하게 정해진 답도 없었고, 아직 진행 중인 기획들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질문을 던지고 연결하고 그려나갔다는 사실 자체로 지속가능성을 향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을 이뤘다는 것이다. 청년 플로우 2기 청년들이 직접 이끄는 회의, 그 안에서 그려지는 심과 기획, 연결의 이야기들은 공익이 계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다.

이 청년들의 고민과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안에는 공익의 미래를 바꾸는 실마리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서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움직이고 있는 이 'flow(흐름)'에 더 많은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어질 그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여성/젠더·재생산권·스포츠

-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 스케치 _ 꿀벌
- 여자도 흥런 칠 수 있나요 _ 또봉
- 생활밀착형 여성단체 '함께크는여성올림' 이야기 _ 꿀벌
- 여자라서 더 잔혹하게 죽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웠다 _ 주야
- 기지촌 할머니가 만든 굿즈, 왜 이렇게 힙하죠? _ 심지
- 사랑이라 불린 폭력, 사회는 왜 눈 감았나 _ 주야

생활 밀착형 여성 단체 '함께크는여성울림' 이야기

에디터. **꿀벌**

지난 4월 21일 안산에는 아주 특별한 생일잔치가 있었다.

풀뿌리 여성 단체이자 전국에 하나뿐인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좌담회였다.

안산 고잔동의 울림 교육장이 "세상을 향한 큰 울림 함께 걸어온 10년 이야기" 꽃으로 가득했다.

김혜정(우공) 전 대표와 조창아(짱아) 신임 대표의 육성으로 여성 단체 '울림'을 들여보자.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김혜정(우공, 왼쪽), 조창아(짱아, 오른쪽)

우공 10년간 울림 활동가이자 2년의 전임 대표 자리를 벗어나서 회원으로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인 우공이라고 한다.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활동가의 탈을 벗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짱아 나는 지난 2년간 울림의 이사였다가 올해 대표이사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대표를 맡기 전후로 내란 불법 계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덕분에 활동가로 갑자기 성장한 대표라고 소개하겠다.

울림이 뭐지? '함께크는여성울림'을 소개해 달라.



깃발을 들고 광장에 참여한 회원들

우공 사무실은 안산에 있지만 회원이 다른 지역과 해외에도 있는 전국구 여성 단체다. 일상의 차별과 성 역할에 간혀 살던 여성들이 모여 떠들고 설치고 자유롭게 말하는 안전한 공간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지역의 작은 배움터다. 이름 그대로 나만 잘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짱아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13개의 회원 소모임이 활발하다. 성 평등 가치를 담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인권 관련 현안, 세월호 참사 등 안산의 민주시민 단체와 연대 활동도 한다. 12.3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비상행동'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다. 올해 4월 울림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펴내고 좌담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10년 전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과정이 궁금하다.

우공 여성 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 등 여성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공부를 했다. 지인들과 발기인을 모으고 돈을 모아 2015년 2월에 안산에서 74명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4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돈이 없어서 페인트칠, 벽지 등 실내장식을 회원들이 손으로 다 했다. 목재로 된 글자 하나까지 발로 뛰어 찾아서 '함께크는여성울림' 현판을 달았다.

당시 안산에 여성노동자회와 YWCA 두 여성 단체가 있었다. 차별점이 뭐가?

우공 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이 중심에 있고 YWCA는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해 평화운동, 청년운동을 함께하는 좀 더 포괄적인 여성공익 운동 단체다. 각각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생활 중심형 여성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 취업률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단시간 시간제 노동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도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공적 활동과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울림은 일상에 밀착된 여성운동 단체다.

지금은 회원이 얼마나 되나?

많이 가입하고 또 탈퇴했을 것 같은데.

우공 현재 200명쯤 된다. 한 해 보통 30명씩은 들어왔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증가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초창기에 "도와주세요", 읍소해서 100명 채워준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떠나갔다. 사돈의 팔촌 회원들 빼면 한 50명으로 시작해 10주년에 200명까지 왔다. 상당수 회원들이 기존 회원의 소개로 오니, 울림은 회원들이 함께 키운 단체가 맞다.

두 분 삶에 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울림의 장점을 자랑해 달라.

짱아 가장 든든하고 신뢰하는 여성들의 집합체다. 울림을 빼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거 같다. 울림 활동 7년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성 평등한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생활 중심형 여성 운동'이라는 모토 그대로였다. "울림이 뭐 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좋은 사람 따라왔다가 배우게 되고 실천으로 연결됐다." 이런 고백 많이 들었다. 나도 그랬다.

울림은 다양한 소모임과 여성연대의 장이다.



13개 회원 소모임을 자랑하고 싶다. 페미니즘 모임, 4.16세월호 참사 기억 모임, 걷기 인증 모임, 산행모임, 글쓰기 및 합평 모임, 영어 모임, 그림 모임, 우쿨렐레 모임, 환경모임 등 여성의 관심사만큼이나 다양하다.

홈페이지 제작 모임, 코딩 모임 등 IT 관련 교육도 늘고 있다. 정치 성향 상관없이 관심 분야로 모여 놀며 배우며 활동한다. 소모임에서 어울려 회의나 여성대회 등 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대 집회로도 연결된다. 나도 처음 울림에 받을 들인 건 활동가들의 인성이 좋아 보여서였다.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별을 품은 사람들’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을 하며 내적 외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

우공 개성 넘치고 재능 있고 멋진 여성들이 울림의 자랑이다. 울림은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는 만남의 장이자 사랑방이다. 사람이 연결되면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활동을 만들어내고 참여와 연대도 이루어진다. 아쉬움은 내가 이슈 파이팅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연대체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울림도 나도 더 확장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제 새 대표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각자 여성운동에 몸을 담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우공 나는 좀 늦게 받을 들인 편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세 딸 중 둘째로 남자가 없는 집에서 자라 그런지 여자라고 차별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몸담았지만, 당시 여성운동에는 별 매력을 못 느껴 안타깝게도 페미니즘 세계를 모르고 20대를 지나쳤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부장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되면서 성차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 아이 낳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고 무의미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따고 1년간 봉사했다. 경력 중단 여성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컸고, 여성들과 상담하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과 가정폭력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 야, 여성에게는 취업보다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깨닫고 관련 공부를 하게 됐다. 30대 후반 본격적으로 여성운동판에 들어간 게 안양여성의전화였다.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성차별 세상을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사무국 일을 주로 했다. 그때 처음으로 안산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

겠다 생각했고 결국 뜻 맞는 활동가들과 울림을 만들 수 있었다.

짱아 2018년에 김혜정 사무국장을 만나게 되면서 울림에 가입했지만 별 활동은 없었다. 순천에서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글쓰기 소모임을 만들어서 울림 활동가들과 더 가까워졌다. 울림 3년 차에 이혼했다. 이혼 후, 울림 회원들이 자주 찾아와, 견고 차마시고 밥 먹고 가끔 술도 마시며 ‘함께’라는 걸 실감했다. 그러다 소모임 ‘별을 품은 사람들’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피하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주하게 됐다. 그때까진 내 슬픔이 가장 컸는데 생각의 전환이 오더라. 외로워서 슬프고 남편이 떠나서 슬프고, 그런 슬픔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내 슬픔에 매몰됐을 땐 해결되지 않더니 다른 아픔에 동참하니 내 슬픔이 작아지고 연대가 주는 위로가 아주 크게 다가왔다. 도망치지 않고 슬픔의 한가운데 서는 법을 배운 거 같다. 그러다 울림 이사 제안도 수락했고 대표이사 제의도 수락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

계엄 사태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다. 시국이 내가 빨리 대답하게 했다. 우리 사회 어떡하지, 울림 어떡하지, 모두 내 문제로 다가왔다. 새로 시작한 생업을 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매주 광화문 집회에도 나갔다. 그때 절박하게 느꼈다. 정치와 내 삶이 따로 있지 않구나. 내 삶을 뒤흔드는 게 정치구나, 내란 시기에 날마다 그런 각성을 했다. 내가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이 선박이 좌초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할게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뒀구나, 부끄러웠다.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울림의 상황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

울림의 신입 대표로서 취임 3개월의 소회가 궁금하다.

짱아 2월 6일에 취임했지만, 작년 12월에 이미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고 내 마음의 결정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1월 중순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가능했다. 그때 활동가들이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준비하고 쓰고 있었다. 그 작업을 도우면서 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했다. 울림

10년 역사를 네 명의 활동가가 책으로 엮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자료집 초고를 읽다 보니 지난 10년의 사람들과 역사를 다시 보게 됐다. 그 수고 덕에 내가 안정적으로 5대 대표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책임을 맡고 보니 전에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여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연대 활동에 대표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가 풀이 크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나갈 사람이 적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의적절하게 매듭 할 거 매듭짓고 자료 정리 잘해준 활동가들이 새삼 고맙더라. 며칠 전 꿈을 꿀 정도였다. 내가 앞으로 2년간 일을 하고도 흠여놓고 쓸러가게 만들지 않을지 걱정돼서였다. 생업과 울림 활동을 병행하며 일상을 살아내려니 마음 관리도 잘하려고 있다.

파면 전전주에 한 회원이 처음으로 집회 참여를 한 후 들려준 소감이 생각난다. 원래 “저는 광장 그런 데는 안 나가요”라던 분인데 내가 지나는 말로 같이 가자 그랬다. 울림은 누구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분이 탄핵 광장에 다녀온 후엔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함께한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 이게 함께하는 재미다.

창립 멤버로서 전임 대표직을 마치는 소감은 어떤가?

우공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성 평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울림도 마찬가지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책임을 내려놓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물러나도 계속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있고 임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회원들이 있다. 또 새 대표가 엄청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언젠가 넘어야 하고 이제는 넘어가는 걸 시도해 봐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적기였다. 내 선택이 옳았고 울림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창립 위원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해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대표 이전이 되고 임원진들이 바뀌고 있다

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10년을 탈 없이 잘 왔다. “울림이 있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람을 느낀다. 10주년 앞두고 몇 차례 비전 워크숍을 하며 우리 단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임원들이 많아진 걸 보았다. 이 사진 중심으로 역할 배분도 되고 공동 운영 마인드도 생겼다. 조창아 대표가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10년 울림의 비전과 과제가 있다면?

짱아 탄핵 광장에 나온 2030 여성들에게서 감동과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분들과 연대하는 페미니스트 단체 울림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놓칠 수 있더라. 오히려 사람들과 하루하루 함께 걷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랬듯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그 자체가 울림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는 교육과 홍보, 재정 확충, 세대 간 연대 등이 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페미니스트 역량 강화도 과제겠다. 현재로선 울림 자체가 내 꿈이다. 울림이 있다는 자체가 내 기쁨이다.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장애/접근성·언어권

장애인 감수성이란 _윤작가

엄마의 메모가 들려주는 말-농 통역사 박수진의 이야기 _윤작가

같은 장애, 다른 대우... 발달장애인 투표는 복불복 _주야

모두를 위한 문, 열려 있나요? _또봉

집값 떨어진다고요 특수학교 설립에 붙은 가짜 뉴스 _주야

손끝으로 이어온 언어, '점자의 날'을 기억하며... _코코볼

엄마의 메모가 들려주는 말 -농 통역사 박수진의 이야기

에디터.윤작가

수어 통역사는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된다. 한국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과,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인 사이에서 그들은 단어와 표정, 침묵마저 언어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다리 위에 또 다른 다리가 존재한다면? 바로 '농(聾) 통역사'이다. 공식 명칭은 '청각장애인 통역사'이지만, 현장에서는 농 통역사라 불린다. 이들은 청인 통역사조차 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농인의 삶과 언어, 그 미묘한 숨결을 대신 읽고, 대신 전한다.

농 통역사는 모든 농인을 위한 통역자이다. 왜냐하면 모든 농인이 수어를 완전하게 구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글로 대화하고, 어떤 이는 입 모양으로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오직 눈빛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 농인의 언어는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유년기의 언어 환경, 교육, 가족, 그리고 농 사회와의 연결 여부에 따라 언어의 형태도, 깊이도 달라진다. 그래서 농 통역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는 소통의 안내자다.

그런 길을 걷는 한 사람, 박수진. 그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안산농아인협회 간사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잃지 않은 한 명의 '나'다. 이 글은 장애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장의 기록이며, '엄마'라는 말이 품고 있는 깊이에 대한 증언이다.



안산농아인협회 간사 박수진

출처 - 박수진 김재민

나는 농아인입니다.

나는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술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 삶을 고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고요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울림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울림은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동생이었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빠의 손 편지, 아빠의 눈물, 그리고 엄마의 수많은 메모. 말 대신 건네받은 글자들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들었고, 내 삶을 꿰뚫는 선이 되었습니다.

내가 두 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말을 좀 늦게 배운다는 것 외에는 그저 귀엽고 예쁜 막내딸이었어요. 어느 평범한 날, 나는

거실에서 놓고 있었고, 그 뒤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집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날 이후, 부모님은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의사의 입에서 ‘청각장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눈앞이 깜깜했다고 해요. 저는 변한 게 없었지만, 세상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고향은 부산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방파제에 갔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손이 내 쪽으로 뻗어왔고,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려 안으시고, 이마를 맞대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파제 아래로 걸어 내려갔죠. 나는 아빠 품에 있어도 넘실거리는 파도가, 얼굴에 날리는 바닷물이 무서웠어요. 그 순간, 나는 입을 열어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아빠.”

아버지는 저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훗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날, 방파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살아갈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바보처럼 같이 죽으러 간 거였다. 그런데 네가 ‘아빠’라고 불러서...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아버지는 어린 내게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보내 구화⁴⁾훈련을 시켰습니다. 휴지를 입에 대고 불어 찢는 연습을 매일 같이했어요. 휴지가 찢어지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었죠. 나는 그 시간이 괴로웠고, 슬펐어요. 무언가를 말해야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흉내 내야만 했어요.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굳게 닫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나는 생모의 손을 잡고 서울로 이사했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오빠와 함께 낯선 도시에 전학을 가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고, 수업 시간은 고통이었어요. 청인들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저는 바보처럼 앉아만 있어야 했죠.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달랐어요.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재미있게 놀았죠. 쉬는 시간만 기다리는 무의미한 학교생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선생님이 장래 희망을 적어 내라는 거예요. 저는 장래 희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몰랐죠. 가만히 앉아 있는 저에게 선생님은 직접 저의 장래 희망을 적었어요.

‘왕자님과 결혼하기.’

저도 모르는 저의 장래 희망은 왕자님과 결혼이 되었죠. 한글도 모르는 저는 멍청히 앉아서 쉬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학교가 그래도 좋았어요.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청소하고, 다시 조용히 앉아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청소는 누구보다 잘했죠. 그래서일까요? 선생님은 나를 안쓰럽게 여기셨고, 생모와 상의해 나를 농아학교로 전학 보냈어요.

농아학교는 내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나처럼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니! 처음으로 ‘같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즐거웠어요. 밤늦도록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수어로 수다를 떨었죠. 나도 평범한 아이였다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주말이면 집으로 갔어요. 보통 오빠가 데리러 왔죠.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묻더군요.

“수진아, 돈 있니?”

저는 많지 않지만, 학교에서 주는 용돈이 있었어요. 가끔 용돈을 모아서 오빠에게 주곤 했죠. 나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던 그날, 오빠는 며칠을 굶은 상태였어요. 생모의 방임으로 오빠는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생모에게 부산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떼를 썼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지 않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꾀를 썼죠. 생모는

마지못해 오빠와 저를 부산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줬죠.

부산에서 만난 아빠는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지루한 소송 끝에 오빠와 저는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죠.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 당시 아빠는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대전 아빠 집에는 처음 보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닫았어요. 나에게 이미 생모가 있었으니까요. 그녀를 무시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언니가 날 괴롭혀.”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리가 터졌어요. 너무나 무서웠죠.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는 저에게 언니는 달려왔어요. 회사에서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구해주셨죠. 생리대 사용법부터 모든 것을 알려주신 언니는 그날부터 저에게 엄마가 되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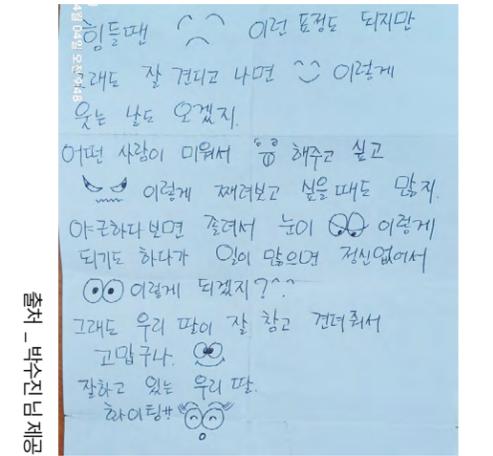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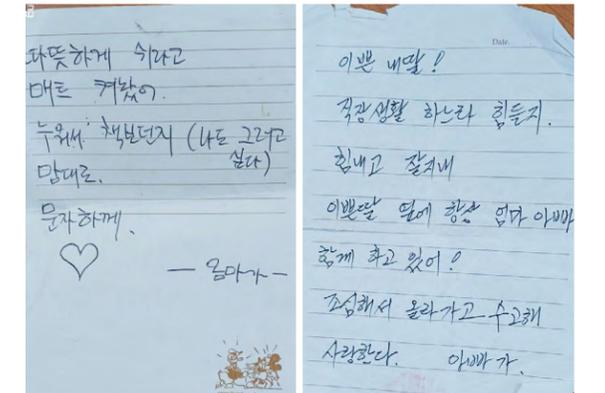
“엄마는 왜, 아이를 낳지 않았어?”

엄마는 내 곁에 누워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을 본 순간 알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두 명이나 아이를 주셨는데, 또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제가 고등학생 무렵이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엄마와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곁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나에게 물었죠.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제가 어눌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인 줄 알았나 봐요? 엄마는 정색하며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제 딸이에요.” 저는 분명 엄마의 입술에서 나오는 ‘제 딸이에요’라는 말을 읽었어요. 그때 저도 “우리 엄마예요.”라고 이야기해야 했는데 못 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의 ‘제 딸이에요’라는 말은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내가 엄마의 딸이구나. 그때부터 엄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엄마 그리고 서울 엄마는 생모가 되었어요.

엄마는 수많은 메모와 편지를 내게 남겨주셨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냉장고에 붙은 메모가 반겨주었고, 서랍 안에는 언제나 손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남겼어요. 그 글들은 내가 버리지 못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출처 - 박수진 씨 제공

가족들이 남긴 메모와 편지

내가 생각이 짧아서 엄마가 수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저는 싫다고 했죠. 엄마가 수어를 알면 간섭과 잔소리가 더 심해질까 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철이 없었어요. 엄마와 수어를 함께 배웠다면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엄마,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언제나 나의 엄마였고, 엄마의 메모 한 장, 편지 한 줄이 나를 살아가게 했어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엄마의 글이 나를 붙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4) 구화인 :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은 아닙니다. 유년기에 청각장애가 생긴 사람 중
 ① 보청기·인공와우 등 청각 보조 장치를 사용하거나, 대화 상대방 입술의 움직임을 읽어서 상대방의 발화를 파악하고
 ② 발성 훈련을 하여 음성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구화인이라고 합니다.
 구화인은 청능훈련·구화법·발성 훈련 등을 통해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를 처음 만난 건 아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시절 나는 엄마를 “언니”라고 불렀지요. 상봉 국민학교에 다니던 나는 종종 아빠 회사를 찾았고, 그때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시원한 물도 건네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매번 엄마가 있는 그 공간을 향해 들떴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어요.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그 ‘언니’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될 거라는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되었을 때, 어린 마음에는 그 변화가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좋아했던 만큼 당황스러웠고, 그만큼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몰라도, 엄마는 단 한 번도 내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다정했고, 꾸준했고, 따뜻했어요. 나를 기다려주고, 말없이 품어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기억나요? 내가 흰 바지를 입고 학교에 갔다가, 월경 자국이 묻은 줄도 모르고 당황하며 집에 돌아왔던 날. 그 날 엄마는 회사 일을 잠시 미뤄두고 나를 향해 달려와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정하게, 월경에 관해 이야기해 주고, 나를 부드럽게 감싸안아 줬어요. 처음 겪는 몸의 변화에 놀란 나에게 엄마는, 생리보다 더 큰 따뜻함을 가르쳐 주셨죠.

감기로 앓아누웠을 때도, 몸살로 말 한마디 못 할 때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요. 병원도 함께 가고, 약도 챙겨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줬어요. 내가 엄마 껌딱지처럼 들러붙었던 시절, 엄마는 아마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지친 내색 한번 없이 나를 안아 줬어요. 그 모든 순간에,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말하고 싶어요.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해요.

요즘 나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전쟁처럼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나도 정신없이 준비하면서 준혁이와 하나까지 챙겨야 하니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문득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도 예전에 출근 준비하며, 오빠와 나를 챙기고, 매일 아침 도시락까지 싸셨잖아요. 그 모든 걸 해내면서도 내 앞에서는

늘 웃어주셨던 엄마.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왜 나만 힘들다고 여겼을까요?

요즘의 나는 많이 지쳐 있어요. 준혁이는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남편은 직장을 옮겨 정신이 없고, 나는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모든 것이 낯설고 버겁기만 해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이상하게 엄마가 떠올라요. 엄마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용기가 생겨요. 그건 아마, 내 안에 엄마가 주신 힘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이겠죠.

엄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엄마에게 벽을 세울 때도, 뒤돌아설 때도, 엄마는 한결같이 다가와 줬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람으로 키우고, 지금의 엄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젠,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시던 날, 내가 할머니 앞에서 약속했었죠.

“할머니, 엄마는 제가 꼭 잘 챙길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 약속,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동안 엄마는 내게 늘 멘토가 되어주었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준혁이 키우며 막막했던 때, 조언해 주고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아빠요. 성격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아빠 옆에서 묵묵히 함께해 줘서, 아빠의 빈틈을 채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엄마께 더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더 자주 웃게 헤드릴게요.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삶으로 효도할게요.

2025. 04. 05.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덧붙이며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농아인을 향한 낯선 시선이 있었다면, 이 글을 통해 마음이 조금은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농아인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딸이고,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 깊고 진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 글에서 그 사랑을 느끼셨나요?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이주·다문화·공동체

정혜실의 빛나던 순간 _윤작가

손으로 노래하는 지구인들 _윤작가

미디어로 지역을 읽다-함미모 이상대표 인터뷰 _력비공

따스네, 따뜻한 숨결을 나누는 사람들 _윤작가

마을에서 일 벌이는 여자, 오현정 _나미

좋은이웃 &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한 1박 2일 강릉 여행기 _윤작가

시흥 미안마 법당에서 피어난 마음의 공동체 _윤작가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3: 공익활동과 로컬리티 집담회 _다름

안산 다문화도서관, 모국어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_윤작가

손으로 노래하는 지구인들 언어의 경계를 넘는 연대와 감수성의 힘

에디터. 윤작가

출처 - 전연 합창단 회장



도서관에서 수어연습 중

2018년 5월, 안산의 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조용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다른 여섯 나라에서 온 이주민 여성들이 '수어'를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이 아닌 손짓으로, 목소리가 아닌 표정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언어는 곧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지구인 수어 합창단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 중입니다. 처음에는 엄마들만의 모임이었지만, 곧 아이들이 합류하며 그 세계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코스모스 활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 수어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손끝으로 노래하고, 표정으로 감정을 전하는 과정은 단지 공연을 넘어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낮선 땅에서 만난 또 다른 '낯섦'과의 교감

합창단의 구성원 대부분은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민 여성들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들은 자국에서 당연한 한 명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이방인'이 되었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소외감을 경험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아이의 학교 알림장을 읽을 때, 병원에서 자신의 아픔을 설명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무력감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버스 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잘못 내리면 길을 잃을까 봐, 질문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합창단의 한 회원은 회상합니다.

다른 회원은 “아이 학교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기 싫었어요. 대화에 끼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이 수어를 배우며 농인들과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소리의 언어' 안에서 느꼈던 소외감,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겪는 불안은 농인의 세계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은 닮아 있었고, 그 연대의 토대 위에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노래가 피어났습니다.

오를 수 있었던 일은 합창단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농인을 포함한 관객 앞에서 손으로 노래하며, 이주민과 장애,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에 섰을 때, 내가 더는 '외국인'이 아니라 '전달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우리의 손짓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차별을 넘어,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언어가 서툰다는 이유로 지적 능력을 의심받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등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거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도 흔합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무시당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픔도 겪습니다.

“한번은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직원이 나를 보지 않고 한국인 남편에게만 말을 걸더라고요. 마치 내가 없는 사람 처럼요.” 합창단의 한 회원이 털어놓습니다.

드디어 초청 무대에 오르다.

코로나 시기에도 합창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어 경연 대회, 뮤직비디오 제작, 찾아가는 수어 교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갔고, 2024년에는 경기도 농문화제 수어 경연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손짓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18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흥시 초청으로 무대에



시흥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초청 공연

출처 - 전연 합창단 회장

또 다른 회원은 “아이 학교 상담 때 선생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고 통역해 준 한국인 친구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엄마인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지구인 수어 합창단 구성원들에게는 농인들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차별과 소외의 경험이 오히려 더 강한 연대 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들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공통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값진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짓으로 키워낸 다음 세대의 감수성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며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높아진 장애인 감수성과 또렷해진 자존감은 코스모스 활짝 합창단이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아이는 수어를 통해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었고, 어떤 아이는 “장애인 친구가 생겼어요”라며 밝게 말합니다.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은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한국에 왔지만, 외모나 부모의 출신으로 인해 ‘한국인이 아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어 활동을 통해 이 아이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자부심을 발견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지구인 수어 합창단은 단순한 예술 단체가 아닙니다. 이들의 활동은 공감 교육이자, 문화 다양성과 장애 감수성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실천입니다. 각종 수어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며 수어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무엇보다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소년원에서 봉사 공연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연대와 이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손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같은 언어를 쓴다고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당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손짓은 오늘도 우리 사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손끝으로 이어지는 이 노래가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손짓 속에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세상을 향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인 수어 합창단 전연 회장의 글

제가 한국에 처음 온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3년 2월, 추운 겨울이었어요. 바람이 차갑고 마음도 외로웠습니다. 모든 소리가 낮설고, 모든 글자는 마치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외국인 지원본부에 다녔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다문화 작은 도서관’을 알게 됐어요. 지하 1층에 있는 그 도서관 문을 열었을 때, 전 세계 언어로 된 책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특히 중국어 책이 많은 책장을 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조금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국인 언니가 물었을 때, 저는 웃기만 했어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그 도서관은 저에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도서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2018년 5월 29일, 한국 수어 수업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그 수업은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줬어요.

수업에는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엄마들, 또 한국 엄마들도 있었어요. 모두 책과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무언가 배우고 싶은 마음도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도서관에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들이 들어왔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달랐지만, 인사를 주고받는 손짓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손끝으로 “안녕하세요”를 처음 배운 날,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말로는 잘 못해도, 손으로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수어를 배우면서 저는 농인들과 제가 비슷하다는 걸 느

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수 언어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되고 외로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뒤, 우리는 ‘지구인 수어 합창단’을 만들어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2018년 10월 6일, 경기도 농문화제에서 우리는 수어로 노래를 했습니다. 여섯 나라에서 온 엄마들이 한국 수어로 하나의 노래를 표현한 거예요. 무대에 설 때는 많이 떨렸지만, 손으로 노래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국인도,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을 전하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이 손박수를 보내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처음으로 이 땅에서 ‘나도 이곳의 일부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안산 수어제에서 아이들과 같이 무대에 올라 대상을 받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저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주민 아이들은 종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수어를 통해 아이들은 ‘다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친구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여섯 나라에서 온 엄마들과 함께한 이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수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언어였고, 누구도 먼저 잘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지구인으로, 손끝의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했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라는 말을 손끝으로 배웠습니다. 지구인 수어 합창단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다른 피부, 다른 언어를 가진 우리가 손짓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진 않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소통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걸요.

2025.05.08. 지구인 수어 합창단 회장 전연



안산시 수어제 대상

출처 - 전연 합창단 회장

“마을에서 일 벌이는 여자, 오현정”

- 도서관부터 ESG 네트워크까지, 그녀가 만드는 연결의 지도

에디터. 나미



출처 _ 에디터 나미

갈등을 모른 척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풀고, 안 되면 내려놓는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지.”

그가 꿈꾸는 건,

서로 돌보는 마을. “세어하우스요. 각자 방은 있지만, 공유 부엌에서 함께 밥 먹고, 안 오면 ‘왜 안 와?’ 하고 연락해 주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평생교육협동조합도 준비 중이다. 나이와 경력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배움으로 성취를 느끼게 하는 곳. “시니어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마을을 배우는 곳.”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해, 평생교육대상 수상자이자 마을 정책 기획자까지. 하지만 그는 말한다. “처음엔, 그냥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고민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실패하면 포기해도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친 활동가들에게 말한다. “쉬어도 돼요. 마을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는 지켜줄 거예요. 이미 만들어놓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오현정의 활동엔 늘 ‘사람’이 있다.

상처도, 회복도, 시작도, 모두 사람에서 온다. 유방암 수술 이후, 활동을 쉬었을 때도 “동료들이 매일 집에 와서 밥을 먹여줬어요. 그 덕에 금방 나았죠.” 가끔은 번아웃이 오기도 한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곁에서 “같이 하자”라고 말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다시 일어난다.

마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회의할 땐 다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만, 끝나면 ‘밥 먹자’고 해요. 그게 마을이에요.”

“책을 좋아했어요. 술 마시는 대신, 책 읽는 놀이터 하나쯤은 있었으면 했죠.”

서울살이를 접고 화성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낯설고도 허전한 마을에 살기 시작했다. 놀이터도, 사람도, 책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만들기로 했다. 작은 도서관 ‘만세 도서관’. 처음엔 ‘내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정작 아이는 사춘기여서 오지 않았다. 대신 동네 아이들이 왔다. 엄마들이 따라왔다. 그렇게 오현정의 마을살이는 시작됐다.

“처음엔 아무도 안 왔어요.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그래서 책을 들고나갔어요. 상인들에게, 주민들에게, 길 위의 사람들에게.”

एको백 하나로 시작한 책 배달은 책수레가 되었고, 이웃과의 대화가 되었고, 결국엔 마을의 얼굴을 바꾸는 손길이 되었다. 벽화도 그렸다. 각국의 국기를 함께 그리고, 쓰레기가 넘치던 길목에 맥문동을 심었다. “남의 나라 국기 아래엔 쓰레기를 못 버릴 테니까요.” 농담 같지만, 깊은 배려가 깃든 전략이었다. 그렇게 쌓인 이야기는 마을을 바꾸고, 활동가들을 모았고, 네트워크가 되었다. 오현정은 화성 마을만들기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을 거쳐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기도 마을만들기네트워크의 상임대표로 활동 중이다.

“어떤 정권이 바뀌었고, 갑자기 마을공동체센터를 직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활동가들이 직접 시장실에 들어가 담판을 지었죠. 성명서에 주민들의 이름을 담아.” 시민이 행정을 견인한 순간이었다.



출처 _ 에디터 나미

그녀는 공모사업을 ‘포기’한 적도 있다.

“사업비를 위해 하려던 일을 거꾸로 맞추고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기꺼이 포기했어요. 우리가 갑이에요. 활동가들이요.” 그 말에선 단호함과 자유가 동시에 들렸다.

화성은 도농복합 도시다. 아파트 단지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농촌의 오랜 단연차들이 교차한다. 그는 이 복합성 안에서 마을마다의 고유한 결을 존중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손을 뻗는다. 그리고 지금, 그는 ESG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테이블에 앉는 구조다. “기업의 사회 공헌과 시민단체의 실천이 연결되면, 활동가에게도 인건비가 생기고, 시민 기금도 자라나요.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출처 _ 에디터 나미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기후·생태·에너지 전환

도대체 러브버그가 왜 이렇게 많을까? _ 주야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슬기로운 에너지 소비 _ 달리

가득 찬 옷장, 하지만 입을 옷이 없다면? _ 다름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 연천을 잘 알고 계시나요 _ 초스코스

#1. 927기후정의 행진 스케치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_ 꿀벌

#2. 927기후정의 행진 스케치 - 세대와 세대가 교차했던 927기후정의행진을 보다 _ 달리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슬기로운 에너지 소비

에디터.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가까이 두고, 에너지 소비와는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자제되면서 TV,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과 인터넷쇼핑이 늘어났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문명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치 애착 인형처럼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TV 등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문제가 주목받고, 이를 멀리하며 휴식을 취하자는 의미의 '디지털 거리 두기'라는 개념도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화, 집중력 상승,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여 '디지털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현재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착 인형인 디지털 기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글쓴이는 이를 에너지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력은 역학 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등을 변환시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말하며 산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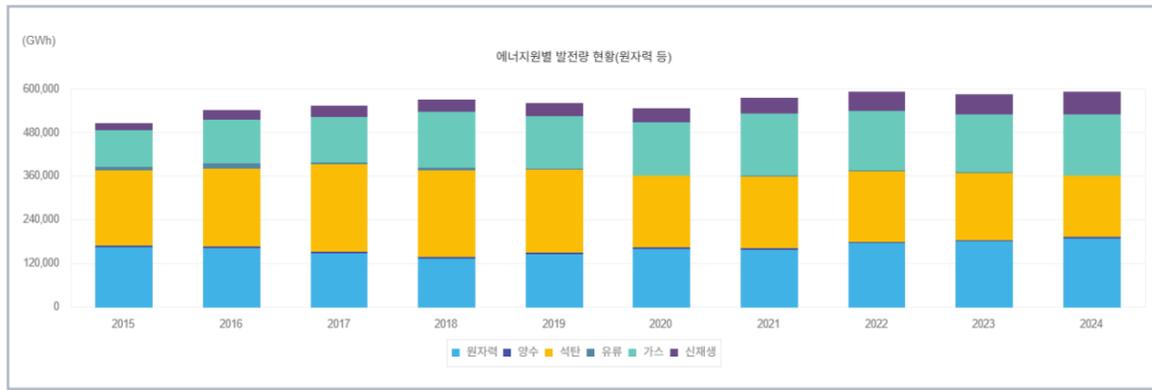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도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족과 주고받은 메신저, 누군가가 보낸 스팸메일, 인급동(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 찾기를 할 때도, 유행하고 있는 CHAT GPT에 지브리 그림을 요청할 때도 많은 전력이 사용됩니다. 이는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시설이 바로 '데이터센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에서는 연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 열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SNS에 유명 인사를 팔로우하기 위해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과정에서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전력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비되면서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_ 미리캔버스



출처 _e-나라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 개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 방법을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와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높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화석연료와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이 아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5%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국 평균인 6.9%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 노력도 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디지털 기기 숲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사용 습관과 더불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_ 미리캔버스

가득 찬 옷장, 하지만 입을 옷이 없다면?

에디터. **다름**



출처 _ 에디터 다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40 B01 가치가게

냉장고는 꽉 찼어도 정작 먹을 건 별로 없듯 우리들 옷장도 비슷하지 않나요? 분명 계절마다 옷 한두 벌은 사는 것 같은데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은 왜 늘 없는 건지? 체형에 잘 맞고 예쁜 옷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옷이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안다면 맘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소위 패스트패션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패션이란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제작되고 유통되는 옷을 말합니다. 계절마다 신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1~2주일을 주기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옷을 제작할 때 드는 어마어마한 물과 염색 폐수, 면화 재배를 하는 데 쓰는 해로운 살충제,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등 옷 한 벌에 수만 가지 문제가 한데 엮여 있습니다. 패스트패션 의류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폐기 또한 대량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옷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언젠가 뉴스를 통해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펼쳐진 버려진 옷들

의 산을 보았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중고로 넘어온 옷들, 참혹하게 폐기된 옷들의 산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옷이 산뜻하고 예뻐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은 우리 일상의 한 요소이자 개인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패스트패션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예쁨을 놓치지 않고 슬기로운 옷 살이를 하는 방법을 찾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가치가게'에서 '옷, 장 해마일지'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의 부제가 흥미를 끕니다. '한 옷 하는 사람들, 그때 그 안목을 판매합니다.' 벼룩시장이나 아나바다 장터와 비슷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취향, 누군가의 안목을 살피고 또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곳 다르게 느껴졌고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누가 어떤 모양의 옷을 팔까? 나와 비슷한 취향을 만날 수도 있을까? 한 옷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출처_에디터 다름

경기도 수원시 권선수 세권로 140 B01 가치가게

가치가게에 들어서자 이미 행거에 판매할 옷들이 바지런히 걸려있습니다. 내 옷장에서는 비록 좀비처럼 잠들어 있었을 지 몰라도 깨끗이 다리고 정리해 새로 숨결을 불어 넣으니 근사한 모양입니다. 가격은 대부분 오천 원 안팎, 제 지갑이 여러 번 열렸다가 닫힙니다. 판매자로 참여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20대 때 처음 남의 결혼식 갈 때 흥대 앞에서 샀던 옷인데 그때 이후로는 입은 적이 없어서 가져왔고, 제가 어깨가 좀 있는 편이라서 퍼프가 안 어울려서 퍼프가 있는 옷들은 거의 안 입게 되길래 가져왔어요”



판매자 서예람 님 출처_에디터 다름

예람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2달 정도 머문 경험이 있는 데 그곳 사람들은 아이나 어른이나 새 옷을 입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별이가 넉넉하지 않았던 20대 때 취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빈티지였고 여전히 빈티지를 좋아하며 최근 들어서는 속옷을 제외하고는 새 옷을 산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이런 옷장 공유 행사가 있어 반갑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판매자 최보라 님은 행거 옆에 전시한 도자기가 먼저 눈에 띕니다.



판매자 최보라 님

“제가 아끼는 거니까 내놓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팔지 말지는 가서 생각하자 마음을 먹고 왔는데, 가치가게 이용자라면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아끼는 도자기와 옷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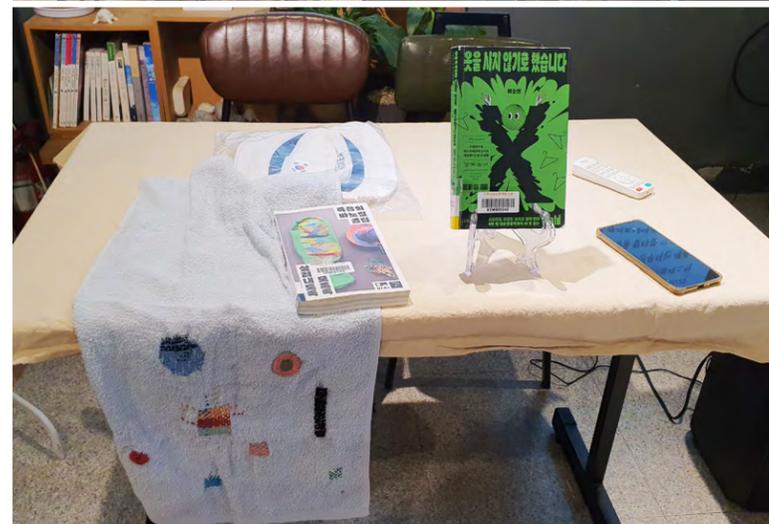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야기 마당도 열렸습니다. 이번 기획을 하게 된 계기부터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야기 마당을 진행한 김성연 가치가게 운영위원은 특별히 2권의 책을 함께 읽은 것이 이번 행사를 여는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소연 님의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고래, 2023)와 복태와 한군 님이 함께 쓴 <죽음의 바느질 클럽> (마티, 2024) 이 바로 그 책입니다.

두 권의 책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서, 기쁠 때는 기뻐서 옷을 샀다. 하지만 쇼핑 센터에서 새 옷을 사 들고 집에 돌아와도 옷장 앞에 서면 나는 늘 작아졌고 불안했고 불행했다.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은 내

모습을 둘러보는 순간에도 트렌드는 시시각각 바뀌고 있었다. 새 옷에 만족하는 유효기간은 턱없이 짧았다. 어쩌면 옷이 많을수록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없더니? 쇼핑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고립시켰다.”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26쪽

“수선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며 한심해하는 이들도 있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무엇이 더 생산적이란 말인가? 기후 위기를 앞당기는 일? 신속하게 새 물건을 구입하는 일? 그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일? 진짜 낭비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매 순간 낭비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은 비효율적이지 않다. 알뜰함은 귀한 가치이고 바느질은 정성이 깃든 노동임을 수선을 하며 깨달았다” <죽음의 바느질 클럽> 151쪽



김성연 가치가게 운영위원 출처_에디터 다름

패스트패션의 민낯을 알고 싶다면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를 읽으면 됩니다. 저자는 소비하면 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불안과 고립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 정성스레 수선하는 마음까지 가닿은 <죽음의 바느질 클럽>까지 읽는다면 내 취향을 지켜가며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슬기로운 옷 살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옷 판매뿐만 아니라 옷을 수선하는 방법도 알려 주었는데 <죽음의 바느질 클럽> 책에 나오는 치앙 마이식 바느질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치가게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면 생활 기술자들이 다양한 수선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옷부터 가방, 우산까지 고칠 수 있는 제품도 다양하니까요 한 번쯤 참여해 봐도 좋겠습니다.

최근 패스트패션 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패션 강국 프랑스입니다. 패스트패션 제품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패션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더불어 2023년부터 옷을 수선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신발을 수선하면 7유로(약 11,300원), 의류는 최대 25유로(약 45,000원)를 수선 업체에서 현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정책이 마련된다면, 우리도 보다 많은 시민이 수선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행사 현장에 다녀온 후 패스트패션에 대한 공부로 확장할 수 있었던 기사와 동영상 자료를 아래 공유합니다. 전국을 휩쓴 물난리 통에 기후 위기 불안이 커진 이즈음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나의 소비와 취향이 더 이상 지구를 해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공유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참고 자료]
그린피스 코리아 | “패스트패션이 절대 친환경적일 수 없는 4가지 이유”
“이렇게 폐기해도 마진이 남으니까” / KBS 추적 60분
“사지 말고 고쳐 입자”...수선비 보조금까지 주는 프랑스 / SBS 8뉴스 유튜브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노동·산재·안전

-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_ 라이언
-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날까지, 투쟁! _ 덕배
- 국제가사노동자의 날(함께 걷는 돌봄의 길, 존중받는 노동의 미래를 향해) _ 럭비공
- 나에게도 '노동법'이 필요한가요? _ 레지스타
- "일하다 죽었다"...노동자에게 여름은 왜 더 치명적인가 _ 주야
- 그들은 왜 캄보디아로 갔나...일자리의 붕괴가 부른 비극 _ 주야
- 황금연휴는 딴 세상 일 아닌가요? - 명절 노동자 이야기 _ 초스코스
- 보이지 않는 도시의 겨울노동-누가 우리의 연말을 지탱하는가 _ 또봉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4월 28일을 아시나요?

에디터 라이언

4월 28일은 무슨 날일까요?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많은 사람들이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이 어떤 날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날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 글은 4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한국에서는 이날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인형 공장에서 시작된 추모의 날



출처 - KBS

태국 방콕 장난감 공장 화재 사진

1993년 5월, 태국 방콕 외곽의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18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69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참사는 안전장치 부재와 기업의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공장에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숨보다 비싼 인형의 도난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을 잠그고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난 순간 노동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표들이 이 사건을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아이들의 장난감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 있다." 이러한 각성이 국제 사회를 흔들었고,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한국에서 4월 28일은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그리고 산재노동자 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 등 시민사회가 안전과 건강을 담은 한 해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지정하며,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인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는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시민사회에서 추모하고,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날까지, 투쟁!

에디터. 덕배



‘4.28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서 세운 안전화탑 출처_오마이뉴스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던 4월 28일이, 올해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제9조의 2(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였고, 이로 인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4월 28일부터 1주년을 추모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 기념일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길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부상과 질

병으로 15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슬프게도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중대산업재해 참사’를 생각하면, 일터에서의 안전은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 건강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통해, 여전히 우리 사회제도의 부족함을 알려줍니다.

추모를 넘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로

4월 28일은 더 이상 몇몇 활동가들만의 기억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추모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겨야 합니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4월 28일은 진정한 ‘기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위험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추모를 넘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4월 28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출처_뉴스1

2025년 5월 1일, 송례문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동절 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그 현장의 열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노동절대회 손팻말

11시 5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는 마당에서는 노동자 풍물패의 힘찬 공연이 펼쳐졌고, 12시 30분부터는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OX 퀴즈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본무대에서 보이는 라디오 “할 말 잇수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필자는 2시 30분부터 열린 “2025 세계노동절대회” 본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부스 부대행사와 전시에도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착한 광화문에서, 송례문까지 한참을 걷고 있는데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깃발을 들고 이동하는 노조원들을 보며 저도 같이 행진에 참여하는 것 같아 연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조 깃발이 외에도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오색찬란한 깃발들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필자는 우선 이번 대회에 함께한 다양한 부스들을 구경했습니다. 민주노총, 성 소수자 노조, 출판노조 등 여러 조합원들이 모여, 다양한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굿즈 판매와 체

출처_연합뉴스

험 부스 등을 운영했습니다. 깃발 제작 체험, 민주노총의 노동 상담, 성평등 관련 부스, '무지개 수호대'(성 소수자를 지키는 민주주의), 전봉준 투쟁단 등 수도권 대회에서만 무려 40여 개의 투쟁 및 의제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부스들은 서명운동, 퀴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부당한 대우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일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바람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저런 부스를 체험해 볼 기회가 많았지만, 노동 조합이나 인권과 관련된 부스를 접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노동절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의를 입고 각자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문제들로 지금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공공운수노조가 '주 7일 배송'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록 작은 변화일 지라도 점차 인식이 달라지고, 회사나 사회도 노동자의 이야기에 조금씩 더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모든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이들의 걸음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포스터전, 매 해 노동절이 돌아올 때마다 다른 디자인의 포스터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출처 _에디터 덕배



다양한 노조 깃발을 들고 비를 맞으며 함께하는 사람들

출처 _에디터 덕배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주거·공간·도시재생

- 2030 올리는 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_ 주야
- 더 나은 지역의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요 _ 미리내
- 철옹성인 문지방을 허물 수만 있다면 _ 초스코스
- 다산에 생긴 따뜻한 동네 사랑방, 공간복지홀 _ 미리내
- 같은 길, 다른 리듬-도시의 공존을 연습하는 일 _ 또봉
- 철도관사 마을의 역사, 사람, 일상이 연결되는 배움의 공간 _ 럭비공

다산에 생긴 따뜻한 동네 사랑방, 공간복지홈

에디터. 미리내



공간복지홈개관식 및 가게

출처 _ 에디터 미리내

공간복지홈,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의 장

지난 6월 27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 포레스트 2단지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공간복지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지시설'과는 전혀 다른 얼굴의 소통과 삶의 공간이었다.

공간복지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한 모델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한 공간이다. 다산 포레스트 2단지에는 약 9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116세대)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도 가까워 세대 통합형 복지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간의 진짜 의미는 '주민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구조'에 있다.

입주자들이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함께 설계하고 운영하며, 지역 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재는 협동조합 세 곳이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공간복지홈의 대표 공간 중 하나는 '다산38국수'다.

'국수나무' 브랜드로 잘 알려진 미나리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3,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제공한다. 벌써 지역 맛집으로 알려져 평일 점심시간이면 긴 줄이 늘어선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근로자들도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닌, 대화와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주거·공간·도시재생

는 경험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하였다.

이 작가의 말처럼 공간복지홈은 도시 환경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적 실험로도 기능하고 있다.



분재워크숍 출처 _ 에디터 미리내

그중 옥상정원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넓은 옥상 정원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바람을 쐬 수 있는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다. 추후 이곳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지역 농산물을 소개하는 마을 장터가 열리고, 마을 정원사를 양성하는 귀한 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눈길을 끈 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수직정원'이다. GH는 스마트 환경연동시스템(SGIS)을 도입해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수치를 실시간 감지하고 정원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나 상징을 넘어서 도시 기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친환경 설계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외벽 온도 저감, 공기질 개선 등 실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낳고 있다.

공간복지홈은 아직 실험 중인 공간이다.

이곳은 '복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식사, 장 보기, 대화, 체험, 심'과 같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더 깊고, 따뜻하게 연결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안에서 복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쉬며, 보다 쉽게 다가올 것이다.



오늘도 가게

식당 맞은편에는 '오늘도가게'라는 공유가게가 자리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동의 협동상회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았으며, 지역 생산품과 간단한 먹거리를 상시 판매하고 있다.

오늘도가게에서는 오픈채팅 기반의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물건을 제안하고 함께 구매함으로써 생활비는 줄이고, 관계는 키워가는 방식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이름부터 감각적인 '지구한조각'은 환경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체험 공간이다.

운영 주체는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아파트인 '위스테이별내'를 기획·운영해온 협동조합이다. 이 공간에서는 환경 워크숍, 제로웨이스트 체험, 소규모 주민 모임 등 지역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내 손안에 작은 정원, 나의 작은 지구조각'이라는 반려 식물 분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간을 대표하여 운영하고 있는 그린디자이너 이경래 작가는, "이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녹색 터전'입니다. 자연의 섬세한 변화와 주민들의 일상이 맞닿아, 서로를 보살피고 존중하는 커뮤니티가 자라납니다. 작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마을의 숨결이 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정책·거버넌스·주민참여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향한 여정 _ 력비공
-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측정 _ 력비공
- 덕통사고, 나는 왜 공익활동에 입덕했는가 _ 또봉
- 주민 목소리로 만든 균형발전 정책 _ 력비공
-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득일까 실일까? _ 초스쿠스
-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 세션 1 : 공익활동과 비영리생태계 _ 참비움
- 오늘의 협력은 미래가 된다 _ 경기도 민관협력 네트워크 연찬회 _ 옐로구피
-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1차 포럼(군포) _ 옐로구피
-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2차 포럼(평택) _ 바람자전거
-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3차 포럼(의정부) _ 초스쿠스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_ 초스쿠스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2차 포럼(평택)

에디터. 바람자전거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4기 에디터 바람자전거입니다. 최근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AI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뉴스를 봐도 AI, 내년도 준비 회의나 워크숍을 해도 AI가 빠지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만이 아니라 AI로 편지를 쓰고, 사주도 보고, 상담도 하는 지금, 이러한 AI의 발전으로 가장 먼저 IT 기업의 일자리들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경기도·시·군 센터 네트워크 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시시대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장 질의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김낙빈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포럼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현실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상 1차 군포, 2차 평택 안성, 3차로 의정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필자는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후2시, 평택대학교 제2피어션빌딩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장

2차 포럼의 사회는 김낙빈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발제는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토론으로는 김혜련 평택 안성흥사단 운영위원,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철민 (사)시민 이사 3분과 현장에는 평택, 안성, 수원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비영리 일자리가 지역의 미래에 어떤 포지션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결과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정립, 생태계 진단, 규모 추계, 그리고 정책 제안입니다.

<p>01.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p> <p>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정의했습니다. 수입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포함합니다.</p>	<p>02. 비영리 범위 설정</p> <p>전통적인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포함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입니다.</p>
<p>03. 현장 의견 수렴</p> <p>5그룹 18명이 참여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정문제, 1인 사무국 체제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보람들이 공유되었습니다.</p>	<p>04. 규모 추계 및 기여 효과 분석</p> <p>기업 통계 등록부와 산업 연관 통계표 자료를 분석하여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했습니다.</p>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와 경제적 기여

연구결과, 경기도의 비영리 부문은 상당한 규모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163,482개 비영리 사업체 수</p> <p>경기도 전체 사업체의 약 5%를 차지합니다.</p>	<p>670,000명 종사자 수</p> <p>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13%에 해당합니다.</p>	<p>117조 사업체 매출</p> <p>비영리 부문이 창출하는 연간 매출액입니다.</p>
--	---	--

가장 놀라운 발견: 부가가치 기준 경기도 GRDP의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료 **14.35%**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비영리 비중 5.4% 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비영리는 생산 유발,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 1.1명 대비 **6.1명**으로 훨씬 높습니다. 비영리는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큼니다.

#3.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 텅 빈 지원

연구 결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현실은 한마디로 “텅 빈”이었습니다. 아무데도 주문할 데가 없습니다.

<p>중앙 정부 일자리 정책</p> <p>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 있지만, 비영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거나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p> <p>특히 5인 미만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p>	<p>경기도 일자리 정책</p> <p>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매우 풍부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p> <p>베이비부머 라이트 잡(일자리 매칭)과 청년 복지 포인트(연 최대 120만원)정도만 비영리 단체에서 가능합니다.</p>
--	--

→ **소상공인 지원 vs 비영리 지원** : 소상공인에게는 배달 택배비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는 우편 요금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요즘 누가 우편을 보냅니까?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예산은 청년 공익활동가 통합 지원 체계 구축(3억 1천만원)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1억 3,600만원)을 합쳐 약 4억 4,600만원 입니다. 반면 기회소득 정책(농업인, 체육인, 아동 돌봄, 장애인, 기후 행동 등)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4.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제안

연구진은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란 단순히 물질적 투자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비영리 공익 활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는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p>0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p> <p>비영리 일자리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p>	<p>0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p> <p>청년 인턴제 확대, 상근 활동가 인건비 지원,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p>	<p>03.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p> <p>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듭니다.</p>
---	---	--

3개년 예산 제안 : 1단계 100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00억 원, 총 3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경기도 GRDP에 기여하는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 **해외 사례 참고** : 일본과 폴란드의 세금 1% 기부 제도, 네이버푸드 매칭 펀드(공익 활동에 쓰인 시간·재능·현물·현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매칭),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토론과 질의 응답

단체사진

연구자의 발제에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명의 토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론1. 비영리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김혜련 평택안성흥사단 운영위원은 평택 지역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평택시민사회단체연대 담쟁이에는 24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만, 상근 활동가가 있는 곳은 반상근까지 포함해도 약 7곳 정도입니다. 자체 활동 공간을 가진 곳은 더 적습니다.

“활동가로 일하면서 사회 이슈에 민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고용주인지 고용되는 노동자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김혜련 위원은 연차가 오래되면서 경력에 맞는 급여를 받지 못해 위탁 운영 기관으로 이동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의 업무 영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인지 마케팅인지 구분이 어렵고, 닥치는 일을 모두 해야하며, 메뉴얼도 없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3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책임	코디네이터 정책	안정적 일자리
삼성, 미군 기지 등 대기업이 들어 오면서 지역문제는 복잡해지는데, 왜 기업은 지역에 환원이 없을까? 기업도 일자리 100명당 1인을 사회적으로 환원해 공익 일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1년 또는 반상근 청년 고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 경기도 차원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공통분모를 만들어주고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안녕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일자리가 지속될길 희망합니다. 과거처럼 개인의 희생이 당연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토론2. 공익과 생존사이, 지역 비영리 일자리의 현실

용솟음 비상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 활동가의 관점에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비상구는 “어떻게 하면 평택에서 더 재미있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청년 공간을 만들고 공익 활동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행사나 단기 프로그램 등 외부 사업을 병행하면서 처음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활동도 지속 가능한 기반이 있을 때 비로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과제입니다.”

1년 사업 구조의 한계	업무 과중	생존 vs 공익
공익활동은 장기적 관계 형성과 꾸준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1년 사업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활동이 자리 잡을 때 사업이 종료되거나 인력이 변경됩니다.	프로그램 기획, 행정, 홍보, 회계, 정산까지 한 사람이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신규 단체일수록 어려움이 큼니다.	공익 활동을 기획하는 시간보다 운영비와 사업비 확보를 위한 행정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살림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3. 지역의 비영리 일자리,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조철민 (사)시민 이사는 사례와 제안을 중심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영리 일자리 관련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 인턴제), 공익 활동의 사회적 인정(직업 분류 코드 상향), 활동가 진로와 노동권 논의, 참여 수당 제도(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이 명시된 유일한 광역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청년 인턴 사업과 기회소득 정책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시민 인식 전환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공무원, 정치인, 비영리 활동가를 묶어서 공공인재로 플레이밍합니다.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에서 비영리 활동가도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할 인재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를 국제노동기구의 ‘디센트 잡(좋은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책적 차별을 없애고,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로 진학 교육에 비영리는 없습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까지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익 활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인식의 전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영리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입니다. 경기도 비영리 부분은 GRDP의 14.35%를 차지하며, 6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고, 사회적 인식은 낮으며, 활동가들은 생존과 공익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 **인식전환** : 공익 활동가를 공공인재로 인정하고,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정책적 지원** :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 **우리로부터 시작** : 선배 활동가든 청년 활동가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장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 ▶ **지역 특성 반영** : 시군마다 공익 활동 환경이 다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 모든 비영리 활동가에게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에어비엔비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꿈꿉니다.”
-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지역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활동가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좋은 공익 활동도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출발한 단체들이 생존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시의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디터 **초스코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4월 4일 탄핵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의 짧고도 긴 국정 공백기의 마침표가 찍혔는데요. 무엇보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긴장과 혼란 속 이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동시에 법사위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선 후보별 유세 발언 등의 중대 국면에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하며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⁵⁾ 이에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뜨겁고도 무거웠던 민심이 표현된 선거 현장을 돌아보며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 2동의 5월 30일 사전 투표소와 6월 3일 본 투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에디터도 먼저 투표에 참여한 후 13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학습한 세대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세대를 포함하는 20~70대 시민을 아우르며 폭넓고 균형 잡힌 정치 참여에 대한 시각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세대 흐름을 고려해 2·30, 4·50, 6·70대로 연령층을 묶은 후 각 세대별 인식을 비춰 볼 수 있는 세 분을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의미, 선거의 상징성 등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였습니다.

※ 다음의 인터뷰는 녹음을 기반으로 가명을 사용해 정리하였고, 발언의 취지는 유지한 채 표현 방식만 다듬거나 편집자 판단에 따라 주요 발언을 인용해 재구성했습니다.

1.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를 치르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나요?

- **이공익.25세** | 유권자들이 후보 공약의 중요성을 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로 제 또래들이 생각보다 후보 공약에 집중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동들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 **최미연.42세** |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무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강민수.60세** |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매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나요?

- **이공익.25세** | 내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투표는 국민의 권리가기에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됐기에 여성분들이 투표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 **최미연.42세** | 자식들과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늘 투표에 임했습니다.
- **강민수.60세** | 이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고, 혹여 아니더라도 맞춰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3.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을 꿈꾸며 투표에 참여하셨나요?

- **이공익.25세** |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며 특히 여자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들이 안전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 **최미연.42세** |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도 많고 색깔론으로 너무 나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 **강민수.60세** | 부모 세대보다는 우리 후 세대들이 살 만한 세상을 꿈꾸며 투표하였습니다. 저는 87학쟁의 주역이었습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12월 3일 이후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을 깊이 성찰하며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4.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느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공익.25세** |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장에 모인 각각의 시민들에게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나서야 한다는 태도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니까요!
- **최미연.42세** | 놀랄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솟기도 하였습니다.
- **강민수.60세** | 100점 이상입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누구나 나서서 민의를 전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선진화된 민주주의 의식의 가치가 실현되는 현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5. 20/40/60대 시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공익.25세** | 20대는 투표를 처음 하거나 몇 번 경험한 세대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욱 가지거나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미연.42세** | 투표는 국민이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전반적으로 언행일치가 되는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서 제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민수.60세** | 사실 민주주의를 완전히 구현하는 표현 방식은 한계도 존재할 수 있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런 수단이 작동이 잘 안될 때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죠.

6.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공익.25세** |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접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 투표소

본 투표 출처 - 에디터 초스코스

5) 조윤하,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 "보수·진보, 다른 이유로 결집"」, SBS뉴스, 2025.06.04.

- **최미연.42세** | 지역감정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민수.60세** | 뜻이 다른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정치적 혼란을 만듭니다. 시민과 정치세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7.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들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공익.25세** |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하는 민의를 모아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시민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미연.42세** |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문조사도 자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 **강민수.60세** | 우선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해 적극 활동해야 합니다. 사회가 이를 원할 시 자연스럽게 육성시키고 원하지 않으면 저절로 쇠퇴하게 할 것입니다.

8. 우리 사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 **이공익.25세** | 서로 달라도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태도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치 참여도를 올릴 수 있게 가깝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로 학교에서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 정부와 지역사회의 좋은 활동을 소개하거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 **최미연.42세** | '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일매일 소통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민수.60세** | 과거 공직사회가 국민들의 1-10까지의 기본적인 요구를 해결했다면 현시대는 매우 복잡해 1.5, 3.75 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소외하지 않고 폭넓게 대변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시민의 모습 출처 _ Pixabay © geralt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절차를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체감하고 참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투표에 숨겨진 현장의 목소리는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일상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선거를 준비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스스로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연대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를 집단적인 퍼포먼스와 상징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승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약 7개월간 펼쳐진 빛의 물결로 불린 '응원봉 집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등장한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집회 형태는 단순히 즐기는 K-POP 문화가 아닌 비폭력·비대립, 세대 통합, 시민 주체성 등의 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꺼지지 않는 LED와 풍자하는 피켓으로 극복하며 지속적인 주권 의지와 해학적인 면모를 선보였기에 큰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응원봉 집회를 담은 일러스트

출처 _ ai 생성(챗GPT 활용)

기존 시민 주도 활동도 능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소셜 미디어 캠페인, 거리의 발언,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등이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노동, 환경, 예술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교류되고 발전하는 공론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점차 이를 뛰어넘어 국민 청원과 고발장 제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의 국민 참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토론회 등 실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구의 융복합적인 정치·문화적 현상은 일종의 '생활 민주주의'의 형태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투표함은 닫혔지만 민주주의는 계속됩니다. 제도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 민주 질서를 판단하고 느끼며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정책·거버넌스·주민참여

특히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와 집단적 표현 문화는 향후 일종의 '감각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소 실천하며 체득했던 민주적 경험은 선거 결과를 넘어 온몸의 감각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는 불씨가 돼 다가오는 시대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방향을 잃은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했던 2일간의 기록은 직접 대의민주주의를 체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정치 갈등 속 허무주의를 느끼기보다 작아 보이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투표용지에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보며 민심의 무서움과 민주주의가 생생히 살아있어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52년부터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 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이후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밤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헌정질서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우리 역사는 어떤 평가를 할까요?

에디터의 투표 인증샷



출처 _ 에디터 초스코스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문화예술·교육·의례

- “꿈을 키우는 작은 시작”, 2025 안양시 도서관의 날 행사 _코코볼
- 천권인생학교 _독서캠프 _력비공
- 독립영화‘풀’ PULL하다. _력비공
- 사라지는 골목에서 다시 태어난 예술 _력비공
- 라부부, 너가 대체 뭔데!? _코코볼
- 곳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 이성호의 해린 _윤작가
- 책과 사람, 환경이 이어지는 열린 배움터 _력비공
- 인권 감응성으로 세상을 읽다 _마시베어
- 비를 맞는 콘크리트 속 작게 피어난 새싹들 _공익활동가학교 새싹 과정 _초스쿠스

독립영화‘풀’ PULL하다.

에디터 **력비공**

독립영화 “풀”은 공익적 목적으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상영된 작품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마을공동체 한미모(구 함미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기획했다. 상영은 2025년 6월 16일 오후 2시, 부천시문화재단 6층 부천미디어센터 스튜디오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토론회, 감상평 나누기, 시민기자단의 현장 취재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Docs)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제영화제로, 부천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서 다양한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DMZ Docs가 독립영화 “풀”의 상영 권한을 제공하고, 영화제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천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경기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미디어연대)는 마을공동체와 미디어 단체의 연합체로, 마을 공동체 한미모(구 함미모)등 지역 주민 조직과 협력하여 영화 상영회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

마을 공동체 한미모는 주민 자율적으로 모인 모임으로, 영화 상영 현장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상영 후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출처 _ 에디터 력비공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안내



한미모 이상하 대표

한미모 이상하 대표는 “이 영화를 통해 부천시민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마을 공동체와의 연

출처 _ 에디터 력비공

계를 통해 영화의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번 독립영화 상영 후에도 지속적인 상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 한미모



'풀' 영화 포스터

이수정 감독의 영화 "풀"은 마리화나, 헴프, 대마초, 위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삼속 식물을 다룬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이다. 비무장지대에 땅을 빌려 대마씨를 뿌리고 재배한 뒤, 삼줄기는 사용하지 않은 모두 매립한다는 조건으로 재배 허가를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산업·건강 분야에서 대마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전개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크게 영화 상영, 상영 후 토론회, 감상평 나누기, 시민기자단 현장 취재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시민들은 "영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어릴 적 살던 고향의 추억과 '삼'이라는 풀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회 이슈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웃과 함께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경험이 매우 소중한 것 같다",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지역사

프로그램 진행 현장



출처 - 에디터 리베어

회에 활력을 준다"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태 감독은 "이수정 감독은 특정한 문제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동의와 비동의를 통해 바라보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라며, "금지와 불법, 사실과 설득 사이의 괴리는 현실 속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 모든 목소리가 반드시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는 평균 35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70%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참여자들은 영화의 질, 상영 환경, 토론회 등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렸다.

이번 영화 상영은 부천시민들에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양한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는 영화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복사골 부천시문화재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마을공동체 미디어연대, 마을 공동체 한미모는 각자의 역할과 협업을 통해 독립영화 "풀" 상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부천시민의 문화적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크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와의 협력, 시민 참여 확대, 공공 공간의 문화적 활용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는 현장이었다.

인권 감응성으로 세상을 읽다

에디터. 마시베어

출처 - 에디터 마시베어



행사 전경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더함 파크에서 열린 공익활동가 학교 전문가 과정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공익 활동'이라는 단어는 익숙했지만, 뒤에 붙는 '전문가'라는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공익 활동의 전문가 과정이란 어떤 프로그램일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은 '공교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보통 '공교롭다'라는 말로 익숙한데요. '공교히'는 이번 공익활동가 전문과정의 메인 키워드이자 "공익활동가 교육에서 희망 찾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적혀있는 말뭉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 외에 '숨씨 있고, 실력 있다.'라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사용하여, '성실한 노력으로 숨씨 있고 실력 있는 수준에 올라서면, 생각지도 못했던 (바라던)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잔잔한 울림을 느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떠올랐는데요. 전문가 과정을 앞두고 공익활동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입학식이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님이 따스한 환대의 말로 활동가들을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지만,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던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다.'며, 공익활동가들의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당부와 기대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처_에디터마시베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

이어 참여자 간의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각자 오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온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줄지 않겠다는 마음, 아파도 꼭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 등등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에 임하는 각자만의 진지한 각오가 엿보여, '공익활동 전문가'라는 말에 어울리는 분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강의 주제는 <공익활동 조직 내에서 만나는 인권 감응성>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강사님은 먼저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공익활동이란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즉 세상을 읽기 위한 필수적인 문법이 바로 인권입니다”

배경내 강사님은 먼저 재난 참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난 참사에 대해 생각할 때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사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불가항력' 정도로 알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생각에는

'재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인권 감수성'이란 재난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난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읽는 역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재난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이기에, 재난은 '인재'라고 불러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재 대신 '관'이 만든 재난, '기업 재난' 등 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내 강사님이 제시한 두 번째 예시는 한때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호민 작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하게 자폐아의 부모와 특수학교 선생의 갈등과 대립으로만 보면, 이 문제는 결국 서로를 향한 혐오, 그리고 상처와 2차 피해만이 남겨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볼 때 그 너머의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그것은 환경과 구조의 문제. 개개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갈등 상황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임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인권 감응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인권교육을 처음 듣는 저에게도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어느새 취재를 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강의에 몰두하게 되었죠. 그동안 자극적인 뉴스로만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오르며, 그 이면에 있을 각자의 사연들이 제 사고의 문을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처_에디터마시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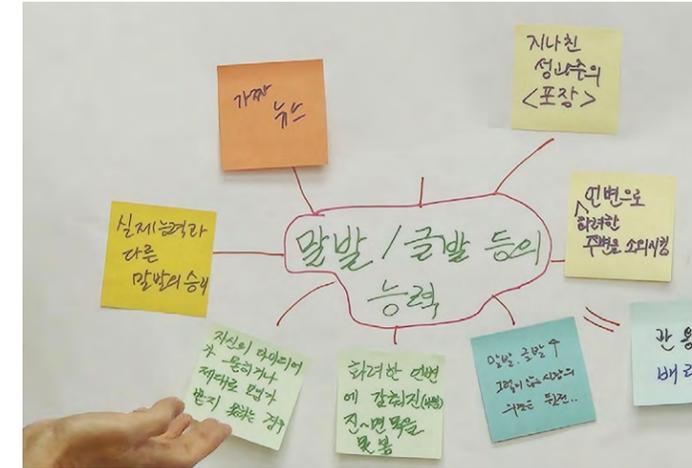


<공익활동 조직 내에서 만나는 인권 감응성> 배경내 강사의 강연 진행

2부는 각자의 조직 안의 문제를 '인권 감응성'이라는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별 활동으로 커다란 전지 위에 자신이 생각하는 조직 내의 문제를 떠올려 적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1부를 통해서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약간의 불편함으로 잊고 넘겨버렸던 것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가들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었기에 이야기들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조별로 각자 적었던 조직 내의 문제들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드러졌던 것은 '고쳐지지 않는 서열 기반 문화', '업무와 비업무시간의 구분되지 않음' 등이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감했던 것은 '대표자 혹은 핵심 인물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보는 권력으로 이어지기에, 정보의 독점은 곧 권력의 독점과 같은 이야기

였고, 그런 사람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만약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던 자원들이 모조리 사라져서 조직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의 문제 찾기 출처_에디터마시베어

모두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그동안 활동하면서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열린 토론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다고만 생각했던 것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 줄 몰랐던 일들이 '인권 감응성'이란 틀로 바라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체대로 된 공익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말이 되고 다짐이 되어 오갔고, 활동가들의 얼굴에서는 후련함과 비장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취재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공익활동가 전문가 과정 입학식. 솔직히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될 활동가분들이 너무 부러워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탄탄한 강의 그리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졸업식을 맞이할 활동가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디지털·AI·미디어 리터러시

- 검찰 사칭? 가짜 서류? 찐센터로 확인하자! _ 주야
- 당신의 클릭은 정치적이다 _ 또봉
- AI가 만든 그림, 도둑질인가 창작인가? _ 주야
-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 _ 윤작가
-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2회차) _ 윤작가
- 나의 첫 공익위키 체험기(3회차) _ 윤작가
-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 _ 윤작가
- 2025 공익활동 페스타 주제세션4: 공익활동의 혁신과 전환 _ 참비움
- 딥페이크 영상 590개 만든 15살...아이들은 왜 괴물이 되었나 _ 주야
- 내 개인정보는 공공정보야! 이젠 놀랍지 않으신가요? _ 초스코스

AI가 만든 그림, 도둑질인가 창작인가?

에디터 주야

최근 인공지능(AI)은 과제물 작성, 디자인, 음악, 글쓰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이나 기업의 마케팅 콘텐츠 제작, 예술 창작 분야까지 그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창작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저작권 체계가 전제로 했던 '인간 중심 창작'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윤리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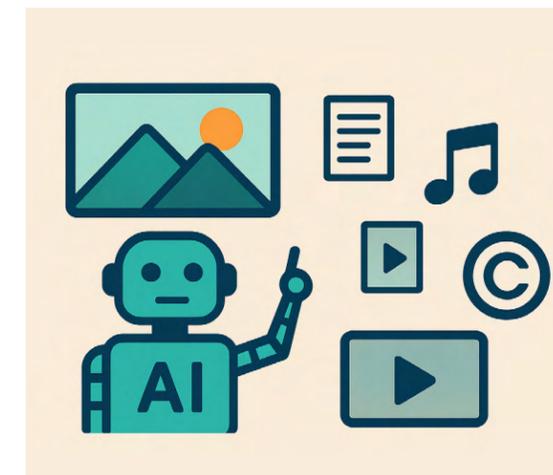
기존에는 창작이라는 행위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는 AI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창작을 보조하거나 심지어 대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정의, 창작자의 범위, 저작권의 귀속과 같은 근본적인 법적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보호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과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AI 창작물과 저작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논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AI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음악,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OpenAI의 ChatGPT, 이미지 생성 도구인 Midjourney, 그리고 음악 제작 플랫폼 Suno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기존의 단순 자동화 기술을 넘어서 창작의 영역까지 진입함으로써, 기존의 창작 개념과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늘날 AI 시대의 저작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결과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창작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창작 과정에서는 대부분 인간이 AI에게 특정한 지시를 내리거나, 생성된 결과물 중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_ ai생성(챗gpt 활용)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고양이 사진을 그려줘”라는 명령을 AI에게 내린 경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실험하고, 그중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선별해 세부적으로 편집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조합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창작성 있는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가 AI 도구를 마치 디자인 소프트웨어처럼 활용해 이미지의 구조, 색상, 구도, 스타일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는 저작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AI 자체는 법적 인격체가 아니므로, 창작물의 권리를 AI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AI를 활용한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둘째는 AI 개발자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성된 결과물이 AI의 설계 구조와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AI가 완전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무저작물로 간주하고 공공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창작물 이용의 자유와 기술의 개방성을 중시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3년 기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AI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을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 해석의 통일성과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인간의 창작 개입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경계**

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생성형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강력한 창작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단한 명령어 몇 줄만으로 문학 작품,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형 AI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허위정보 생성 등의 잠재적인 법적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 포털이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처럼 플랫폼의 기술적 중립성을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과물의 특성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플랫폼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나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방조’ 혹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생성형 AI 기업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자사의 저작권 이미지 수천만 장이 Stability AI의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포착되면서, AI가 원본 저작물을 단순히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 ‘재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플랫폼에도 일정한 법

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국에서 코미디 작가 사라 실버먼(Sarah Silverman)을 포함한 작가들이 메타(Meta)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책과 텍스트가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AI 플랫폼이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AI 플랫폼이 결과물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감시 및 통제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기능의 제공을 넘어, AI의 작동 방식과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나아가 윤리적 기준 수립과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 시스템 운영, 침해 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입법기관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향후 과제와 정책적 제언

AI의 발전과 함께 창작 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현재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큼니다. 프롬프트 제공, 결과물 선택, 편집 및 조합 등의 창작 행위 중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AI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해 생성한 콘텐츠가 원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이를 침해할 경우, 이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 저작자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수익 배분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기준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단순한 도구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 시스템 강화, 사전 필터링 기술 도입,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의 기술적·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저작권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무제한적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공정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기준 마련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AI는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법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제 저작권 협약과 AI 기술 규범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기준 형성과 국내 입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소유, 공정성과 책임, 법과 윤리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공론화, 교육,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가족·돌봄·청소년·세대

- 잡꾸러기들이 인생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_ 주야
- 놀이터엔 왜 아이가 없을까? _ 또봉
- 내가 엄마를 돌본다고요...? 교복 입은 간병인들의 비밀 _ 주야
-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손길이 필요해 _ 코코봉
- 사교육비 26조 시대, 교육은 부모의 지갑 크기 따라 결정된다 _ 주야
- 엄마아빠가 시키는대로 하면 저 성공해요? _ 초스코스
- 사랑의 탈을 쓴 폭력, 경기도가 움직였다 _ 주야
- 중장년 입문 워크숍 다르게 살아볼 결심 _ 참비움
- 누가 이들을 '무연고자'라 부르는가... 죽음마저 외롭게 만드는 사회 _ 주야
- "돈 받고 남의 아이 키운다구요" 위탁부모들이 눈물로 말하는 진짜 이야기 _ 주야
- 마음의 불빛, 치유의 길 _ 초스코스
- 공감으로 피어난 변화, 전화 한 통의 기적 _ 공익인간
-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_ 초스코스
-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노인들...당신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_ 주야

중장년 입문 워크숍 다르게 살아볼 결심

"그래, 결심했어!"

에디터 **참비움**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중장년 워크숍 웹자보

그림 속 두 인물, 누구 같나요? 남자는 박중훈이 연상되는데 여자는 글씨요... 바로 떠오르질 않네요. 살짝 나이 든 고아라? 사실이 그림은 중장년 컨셉에 맞춰 시가 그린 거래요. 옛날 잡지의 표지를 연상시키는 웹자보가 그야말로 레트로 감성 충만이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곳곳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중년 특집, 인생 2막, 의미 있는 전환, 공익활동, 첫걸음, 비숙박, 무엇보다 다르게 살아볼 결심.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화성 정남의 YBM연수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공익활동 입문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청플 같은 청년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시도로 중장년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답니다. 저 역시 중장년 에디터로서 워크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이나 꼬박 시간을 빼야 하는 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약 20명의 참가자들이 이 솔깃한 초대에 응했습니다. 입문 과정이지만, 사실 이분들 중에는 첫걸음이 아니라 이미 저만치 앞서 걷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첫날의 문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적옥 센터장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왜 우리에게 공익활동이 필요한가?"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가 행복인데, 우리는 이 행복을 어떨 때 인식하게 될까요?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에 우선해서 가장 높은 순위에는 소명이나 가치 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익만큼이나 공익도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는 거죠. 특히 자녀 독립과 직장 은퇴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중장년층의 봉사나 재능 기부가 활발하다네요.

공익활동은 이러한 자원봉사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소망탑 만들기나 환우들의 자조 모임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 편입된 공익활동도 있지요. 사례 중심의 여는 강의를 통해, 참가들은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개념을 배우고 이를 지원하는 여러 플랫폼도 소개받았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흥미로운 작업을 이어갔어요. 바로 내 삶의 궤적 찾기입니다. 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일차 - 자기소개, 내 삶의 가치 찾기

그에 앞서 세 그룹으로 모여 함께 그리기를 했는데요. 다들 오랜만에 학창 시절 미술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을까요? 잘 그리려면 우선 잘 들여다봐야 하지요. 조원들의 얼굴을 한 사람씩 유심히 관찰하면서 서로가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분 30초 제한 시간 안에 간단히 자기소개와 이 과정을 신청한 계기도 나눴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경험은 무엇인지, 한 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나의 행복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학 교수 탈 벤 샤하리의 말처럼 '행복=즐거움+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참가자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경청했습니다.

첫째 날, 나를 발견했다면 둘째 날은 그런 나와 어울리는 공익 활동을 탐색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오전에는 실제 공익 활동가의 생생한 사례를 만났습니다. 놀이 같았던 취미를 마을활동으로 확장한 김광원 님, 세월호를 계기로 여성 단체와 작가 활동을 시작한 김화숙 님, 공무원 퇴직 후 평화운동이라는 인생 2막을 연 한경준 님까지 3권의 사람책이 자신의 공익 활동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때로는 공감이 되고 때로는 자극이 되지요. 사람책도 그렇습니다. 사람책과 독자 모두 짧지 않은 삶의 이력이 있기에, 어느 부분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기존 가치관에 작은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도록 취사선택해서 꼭꼭 소화 시킨다면, 아마도 제일 바람직한 독서법이 아닐까 싶네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단체사진

이들 동안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강점과 공익활동을 매칭 시켜 각자의 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열심히 빈칸을 채워 나갔습니다.

신간을 들고 정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낭독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태블릿 활용능력 교육, 세대 간 연대를 도모하는 저탄소 요리 모임 등 어떤 분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역할과 일정이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전에 시작하겠다는 낭만적인 대담도 있었죠. 센터는 이분들의 첫발을 위해 정보와 도움을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처럼 센터의 아카이브 에디터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조?

역시나 중장년 워크숍이라고 확인시켜준 몇몇 순간들이 있었네요. 필기할 때 주섬주섬 꺼내든 돋보기안경, 생일로 순서 정할 때 등장한 음력 생일, 버킷리스트에 단골로 들어간 건강 이슈, 이휘재의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의 추억. 센터가 신경 써서 준비한 간식도 어른들 입맛의 먹거리였다지요.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은 '민주주의기술학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맡아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려면 필요한 대화와 소통의 기술을 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제 경우는 오래전부터 시사잡지 <녹색평론>을 구독했던 게 지금 제 가치관과 활동의 뿌리 같습니다. 낯선 세계를 향한 그 첫 마음은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아니면 그전에 최소한 작은 씨앗이 배태돼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르다, 언제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을 위한 멘트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습관이 돼야 한다' 이것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을 위한 멘트입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나 당장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지요.

공부처럼 공익활동에도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중장년 베이비부머가 참여하기는 더욱 좋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다르게 살아볼 결심'이라는 제목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는군요. 중장년 여러분, 어디 한번 다르게 살아보시렵니까? 부디 모두들 좋은 씨앗에 제대로 낫인 것이기를!



2일차 - 계획 세우기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3개의 시선, 128편의 기록

: 에디터 원고 읽기

4

공익활동·기록·홍보

- 5기 경기도공익활동 아카이브 에디터 봄바람과 함께 출발하다 _ 엘로구피
- 그대가 걸어온 길은 외롭고 힘겨웠지만 _ 꿀벌
- 기록을 콘텐츠로! 아카이브를 브랜드로! _ 참비움
- 아카이브 에디터들의 열정이 여름의 태양처럼 공익활동을 무르익게한 날 _ 엘로구피
- 사진이라는 언어로 공익활동을 기록하는 법 _ 엘로구피
- 밤하늘에 번진 공익의 열기 _ 또봉
- 오늘의 인연으로 오늘과 내일을 잇다 _ 엘로구피
- 기록의 계절, 남겨두는 일에 대하여 _ 또봉
- 에디터의 사계절 _ 다름
- “글 좀 쓴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5기 에디터의 마지막 답변은? _ 초스코스
- 아키비스트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_ 초스코스

오늘의 인연으로 오늘과 내일을 잇다

에디터. 엘로구피

실타래, 그리고 이야기의 시작.

‘실타래처럼 얽혔다’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실이 홀로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실타래가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 한 올, 한 올은 손끝을 지나며 방향을 틀고 때로는 얽히면서 다시 이어지죠. 이 실은 한 줄의 기록일 수도, 사람일 수도, 오래된 사건일 수도, 오래된 사건 혹은 잊힌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의 현장은 그런 실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얽혀 만든 실타래에 주목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경기상상캠퍼스 멀티벙커로 시민 기록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올해 시민기록 컨퍼런스의 부제는 ‘깎다, 엮다, 잣다, 잇다’였습니다. 기록 속에 담긴 마음을 꿰매고, 함께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엮고, 진동하는 사유를 잣고, 각자의 결을 맞대어서 잇는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있는 기록에 관해 다 함께 사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의 컨퍼런스는 실타래를 풀고 다시 묶는 여정이었는데요. 그 매듭을 푸는 바늘이자 매개는 바로 ‘공익(公益)’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이란 단어는, 사전 속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만 남고 말죠. 그리고 그 정의만으로는 흩어진 것을 잇고, 찢어진 것을 기워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 정의의 바깥에서, 몸으로 공익을 잇는 사람들, ‘시민기록자(에디터)’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에디터들은 세월호의 노래를 기록하고, 만세길의 발걸음을 담으며, 영케어러의 하루를 글로 남기고, 이주민의 언어를 번역하며, 기후 정의 행진과 시민 햇빛 발전소, 전세사기 대응까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였습니다. 에디터들이 포착한 현실은 때로는 처절했고 어떤 때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1기부터 5기까지의 에디터들이 남겨온 기록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간 에디터들이 모아온 세상의 목소리를 엮고 이어서, 세상과 유리되지 않은 숨 쉬는 기록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랍니다.

마음을 깎다 - 전시 체험 부스

경기상상캠퍼스는 완벽한 가을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고통받으며 가을을 그리워하던 때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매력적인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상상캠퍼스의 잔디밭



2025 시민기록 컨퍼런스가 진행된 경기상상캠퍼스 전경
출처 _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과 건물 사이에 참가자들이 시민기록자들의 활동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참여형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기록자들의 실제 필체를 따라 원고 속 문장을 직접 써볼 수 있는 ‘필사 체험’과 타자기로 엽서를 직접 완성할 수 있는 ‘타자기 엽서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타자기는 최근에는 만나보기 힘든 물건이다 보니 ‘타닥타닥’ 타자기 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가을의 낭만과 함께 신기한 기분을 느껴보려는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타자기 엽서 체험



듣는 기록물 전시 체험 중인 참가자들

한쪽에서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기사를 귀로 감상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원고를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디터들의 음성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록 전시 방식이었습니다. ‘심지’ 에디터를 비롯한 3인의 에디터가 자신의 기록물을 직접 녹음하여 귀로 들을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실뜨기 체험부스

무엇보다 신기한 체험은 ‘햇빛과 대화하면서 글쓰기’였는데요. 최근에는 시가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시와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만의 기록집이 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시가 어떻게 기록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억의 ‘실뜨기 놀이’ 부스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추억을 되새겨보는 참가자들도, 어른들에게 실뜨기 놀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즐겁게 부스 체험을 이어 나갔습니다. ‘단어 교환소(우드 버닝)’ 부스에서는 나무 조각 위에 불로 그림을 새기며 ‘기록의 흔적’을 남기는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운 인두펜의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나무에서 나는 향은 마치 한 해의 기억을 조심스레 새기는 의식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의 이름이 단어 교환소인 이유! 그건 바로 내가 새긴 글귀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이 새긴 글귀를 내가 가져가고 나의 기록은 뒷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록을 내가 이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잇다’를 직접 체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닉네임 상상도 부스 체험 현장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닉네임 상상도 부스 체험 현장

마지막 부스는 ‘닉네임 상상도(아날로그 감성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에디터들의 개성 있는 닉네임을 부스 참가자들이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어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낸다는 사실이 정말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스 체험을 즐긴 참가자들은 본격적으로 1부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원고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을 짓다 [1부] 원고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공연이 있는 토크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유명화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본격적인 행사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행사를 하자고 결정하면서 에디터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고 꾸밀지가 참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리 와서 보니, 저희가 5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 노력, 역량의 성장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타래라는 말을 들으면 각자 실타래라는 말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타래를 잡고 엮고, 잣고 잇기도 하니깐요. 이 네 가지 표현들이 그동안 우리 에디터들이 해온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매우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은 현장을 남기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익활동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행사는 5기 에디터들이 8월부터 기획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여기에 이렇게 구현이 잘 되어 기쁩니다.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지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앞이었던 에디터들이 이제 단풍나무의 빛깔처럼 각자만의 색깔로 피어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하나의 역사와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공연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의 개회사 뒤에는 이번 컨퍼런스를 더욱 몽클하게 만든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공연이었는데요. 이들은 수어로 노래하는 팀으로, 언어의 경계를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들은 5기 에디터 윤 작가님의 글, ‘손으로 노래하는 지구인들’ 속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은 노래의 새로운 정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몸과 눈으로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니 이날의 자리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본격적인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크쇼의 주인공이 될 기록 속 주인공들은 5기 에디터 두 분(윤 작가님, 꿀벌님)과 그 기록 속의 주인공 두 분(전연 단장님, 열쑈 활동가님)이었습니다.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1부 토크쇼 진행 현장

지구인 수어 합창단의 단장인 전연 님은 중국에서 오셔서 안산에서 다문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에디터 '윤작가'와의 인연을 통해 글의 주인공이 된 전연 단장님은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의 어려움과 수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들려 주셨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왜 한국 수어를 배우는지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문화도, 언어도 달라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안산시 외국인 지원본부에 한국어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레도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우연히 안산 작은 다문화 도서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중국어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장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이 땅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고 수어 수업을 들은 것은 아주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어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연 단장님이 겪었던 미국땅에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은 새로운 따뜻함을 찾아 나서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 수어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수어를 배우기 전에 청각 장애인분들이 저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서로가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주 여성들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청각 장애인분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손짓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수어를 통해 배웠습니다. 같은 언어를 통해야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언어를 진심으로 느낀 그 마음의 울림이야말로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생각하는 소통에 대해 들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표면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록이 기록 대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대상과의 진정한 소통이 필수적인데요. 진정한 소통의 본질이 비단 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토크쇼의 다른 주인공인 열수 활동가님은 안산 YWCA,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44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찐찐 안산 시민’ 이십니다. 꿀벌 에디터님은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열수 활동가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워낙 광폭으로 활동하는 시민 활동가라서 어디 가나 계

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토크쇼를 통해서 열수님의 헌신적인 공익 활동 방식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그마치 26개의 단체를 후원하면서도 나중에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하여 8개 단체에 평생 회비를 납부했다는 열수 활동가의 행보는 최선을 다해 공익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토크쇼에 참여한 꿀벌 에디터님의 이야기 중에서는 글쓰기를 ‘침묵에 길들여진 여성’으로서 자신을 깨는 하나의 방식을 역설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해소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해 들으면서 많은 참가자가 기록과 기록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게 되었답니다.

서사를 엮다 [2부]
실타래를 만들어 소감을 공유하기

2부에서는 ‘지금, 우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모든 참석자가 함께 하는 ‘실타래 엮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던진 실타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에게 실타래를 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실타래가 얽히면서 참가자들의 이야기와 마음도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의 주요 키워드인 ‘실타래’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살려낸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타래를 옮겨 가면서 참가자들에게 기록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고 있는 의미 있는 현장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기록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야기가 쌓여갔습니다. 유명화 센터장님은 이 자리에서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나누셨습니다. 과거 권위적이고 평가 중심으로 여겨졌던 ‘기록’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 많았지만, 에디터들의 활동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이러한 ‘말랑말랑한’ 기록의 힘이 공익 활동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도 다시금 기록 활동에 열정을 쏟아보겠다는 다짐을 전하셨습니다. 전시 기획에 참여하신 한 분은 에디터들의 글을 접한 소감을 나누며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는 에디터들을 ‘삶으로서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진실 말하기’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러나거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어느 지점에는 나선형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민 기록 활동이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나선형의 진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수 있겠죠.

또한, 기록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야기들도 이어졌습니다. 한 에디터는 구술 기록 작업을 하며 제대로 된 기록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를 본 경험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활자 권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기록이라는 게 글을 쓸 수 있고 글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옛날 기지촌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 얘기를 남길 수가 없었죠. 국가가 남긴 기록은 그분들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동두천에는 쌓아 두었던 공공 기록물이 홍수로 인해 소실되어 1950년대 자료는 없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누구의 기록을 어떻게 남길까, 또 이런 기록을 어떻게 잘 보존할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힘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잊고 하는 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말고 있는 기록이 먼 미래에는 참 절실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고 기록자인 내가 사라져도 세상에서 오래 살아남을 테니까요.



출처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남기는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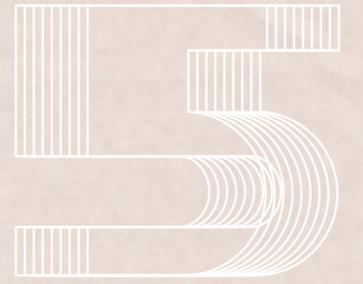
사람을 잇다.

이번 제5회 시민 기록 컨퍼런스 '실타래'는 단순한 기록의 공유를 넘어, 우리 시대의 진정한 공익 활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선사한 자리였습니다. 물리적인 실타래가 얽히고설켜며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듯, 각자의 자리에서 써 내려간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서로를 만나고 엮이며 거대한 '연대의 실타래'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컨퍼런스의 이름처럼 각자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의 큰 흐름이 된다는 뜻"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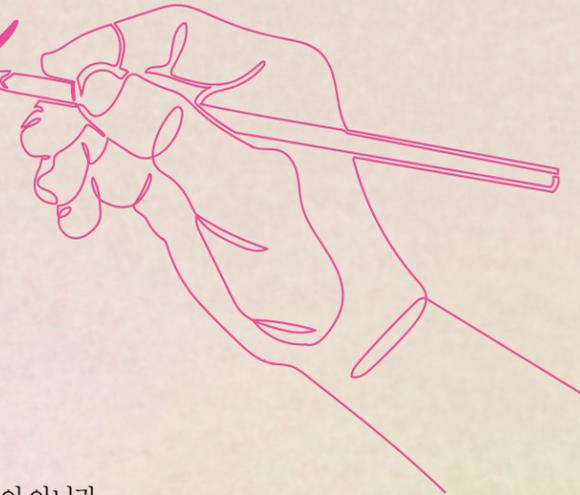
'실타래'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안고 엮여지는 하나의 공동 운명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에디터와 그 삶의 주인공이 만나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했듯이, 기록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사소한 발걸음이 이웃의 삶과 사회 변화의 큰 그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 기록이 가진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제 컨퍼런스는 막을 내렸지만, 우리 안의 기록자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기록은 우리가 더 이상 타인의 역사를 읽는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삶을 기록하여 타인에게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필사에서 시에 이르는 기록의 진화처럼, 우리의 소통 방식 역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선 깊은 공감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겠지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시작하고 이어가고 있는 기록의 역사는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큰 뿌듯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각자가 잡고 있는 기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계속 엮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죠? 손으로 노래하고, 삶으로서의 작업을 이어가는 모든 기록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끝없이 이어질 다음 페이지를 기대합니다



기록이 남긴 벚꽃



마치며

2025년 한 해 동안 5기 에디터들과 함께한 시간은 공익활동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공익의 결을 함께 살아내고 그 흔적을 남기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웹진의 한 쪽지, 한 장의 사진, 짧은 문장 뒤에는 현장을 향해 걸어간 발걸음과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간들이 겹쳐 있습니다.

공익웹진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포착한 세계를 서로에게 건네는 통로였고, 시민기록 컨퍼런스는 그 기록들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모여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5기 에디터들은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단단하게 공익활동의 현장과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록은 정답을 제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었고, 공익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거진은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엮어온 실타래의 중간 매듭입니다.

여기에 담긴 128편의 기록은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는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페이지를 덮는 순간, 이 기록들이 또 다른 기록을 부르고 또 다른 질문을 남기를 바랍니다.

기록이 남긴 여운이 다음 발걸음을 향한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당신의 손에 건넵니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더 많은 웹진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아래 큐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행월 2025년 12월

기획 및 편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집필 5기 아카이브 에디터

주소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전화 북부센터 : 031-853-9766

남부센터 : 031-267-4340

홈페이지 www.gggongik.or.kr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